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872 1982년 7월 12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Monday, July 12,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JUL 1 3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캐나다를 압시다"

자랑거리 : 팝송의 앤·머리, 하키의 그레츠키, 록키산맥등

금년 7월1일 캐나다·데이는 캐나다가 국가로서 탄생한지 115년이 되는 해로 캐나다가 자체 헌법을 가진 후 처음 맞는 생일이기도 했다. 연방정부는 영국의 식민지라는 느낌을 씻기 위해 국가탄생일을 「도미니언·데이」라는 호칭에서 「캐나다·데이」로 바꾸었고, 이 나라 지식인들은 점차 캐나다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국가의식의 문제를 심각히 파헤치고 있다. 흔히들 캐나다란 어떤 나라인가를 설명하기가 그다지 쉽지 않다고 말한다. 지도상의 위치·면적·인구수는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캐나다의 문물에는 어둡기 때문이다. 캐나다에 사는 사람들로서 캐나다를 보다 잘 알기 위해서 7월3일 토론토·스타 부록 「투데이」(To-day)지가 밝힌 캐나다의 최고 자랑거리 115가지를 전재한다. 이 중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캐나다인에 의한 발명품, 고안품, 단체, 명승지는 물론, 작가 마가렛·로렌스, 바하 해석의 제1인자 글렌굴드, 비평가 노숍·프라이, 피에르·트루도 등 인물도 들어있다. 스타지는 이 115개의 명단을 2월부터 5개월간 실시한 여론조사로 추출했다.

◆신뢰의 상징이 되고있는 캐나나 국기.

◆아름나운 도시 쾌벡시.

1)로버츤·스크루(4각형)와 스크루·드라이버.

1908년 온타리오주 밀턴에 거주하는 피더·L·로버트슨(Peter L. Robertson)씨가 고안해 낸 끝이 네모난 스크루·드라이버는 종래의 끝이 일자(ー)로 파인 스크루에 비해 미끄러지지 않고 한 손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2)캐나다·카운슬(The Canada Council).

예술과 예술가에 대한 후원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에서도 부러워할 정도의 효과적·실험적인 캐나다의 문화후원기관. 많은 문화 예술종사자들이 카나다·카운슬의 정신적·물질적 지원으로 커가고 있다.

3)국립·주립 공원들.

지구상의 어떤 나라가 아름다운 자연, 공원을 캐나다에서 만큼 잘 가꾸고 있을까?. 카나다의 자연은 무궁한 즐거움을 안겨주는 온 국민의 벗이다.

4)캐나다 국기.

차뒤에 붙이거나 가슴에 달고다니는 캐나다 국기는 서서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신뢰의 상징이 되고 있다.

5)아닉 I, II, III.(Anik I, II, III).

10년전 캐나다는 세계최초로 비군사 목적의 통신위성을 쏘아 올렸다. 아닉 II, III은 아닉I을 개발한 것으로 캐나다 전역의 TV위성 중계를 맡고 있다.

6)모린·포리스터.

구스타프·말러의 작품과 독일 가곡의 권위자로 꼽히는 세계적 소프라노.

각국의 유수 오케스트라와 공연했고, 특히 81년 중공을 방문 연주와 아울러 성악을 지도 큰 인기를 얻었다.

오는14일밤 토론토·심포니와 포럼(Forum)에서 공연한다.

7)세이그니 강(The Saguenay River).

1,600피트 길이의 로렌상·쉴드를 가로 질르는 세이그니강은 세계에서 가장 로맨틱한 명소중하나.

8)밀(Wheat)

캐나다산 밀은 가장 좋은 질의 밀로 꼽힌다. 러시아와 중국이 최우등품으로 꼽는 단단하고 붉은(Hard Red Spring)밀이다.

9)뉴펀들랜드 개.

한국이 진도개를 자랑하듯 캐나다의 뉴펀들랜드 토종개는 털이 많으며, 어선에 동승시키기에 가장 이상적이다. 많은 뉴펀들랜드 어부들을 구하기도 했다.

10)쾌백시.

쾌백시는 일찌기 19세기 미국 소설가 헨리·제임스도 극찬한 아름다운 도시이다.

11)국립발레학교.

불과 23년 역사의 토론토 국립발레학교는 오랜 전통을 가진 런던의 로열발레학교, 소련 레닌그라드의 키로프와 맞 먹는다.

(계속)

캔두 3대 유출·폐쇄

한국에도 동종의 원자로

(토론토 7일=연합)경북 월성에 건설중인 원자력 발전소와 유사한 캔두핵발전소의 두개의 열교체기중 1개가 유출되고 있음이 밝혀져 6월말로 폐쇄됐다.

온타리오·하이드로의 대변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유출은 열교체기 튜브가 진동으로 마모된 데 원인이 있다.

이 대변인은 또 캔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방사성 유출이 있어 폐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5개월간 3개의 캔두 원자로가 유출사고로 폐쇄됐었다.

캐나다는 현재 670메가와트급 캔두 원자력발전소를 월성에 건설중이며, 앞으로 약 15억달러의 캔두 3대를 더 판매하려고 노력중이다.

금리인하 대책으로 자금유출 방지법

(서울7일=연합)한국정부는 최근 금리를 년10% 인하시킨데 따른 국내의 자금및 개인재산의 국외 유출을 막기위한 특별법을 제정할것으로 보인다.

김준성경제기획원장관은 9일 국내 금리가 국제 금리보다 훨씬 낮아 많은 사람들이 재산및 자금을 해외로 불법유출시켜려 하고 있는데 대비, 모종의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경제제 지도자들과의 간담에서 밝혔다.

한국일보
533-2361

◆이탈리아가 월드컵 축구 준결에서 폴랜드를 누르고 결승에 진출하게 되자 토론토의 이탈리안들은 8일밤 늦도록까지 요란한 축제의 행렬을 벌였다. 자동차와 트럭에 올라타고 이태리 국기를 흔들고 경적을 울리며 승리에 도취된 이탤리언·캐네디언들은 만약 이탈리아가 우승하면 캐나다가 깜짝 놀랄만한 축제를 벌이겠다고 기세가 대단.

정재파군 무죄선고

여대생 죽음에 대학생들 곤욕

(서울9일=연합)여대생 상은양 살해혐의로 기소된 두번째의 대학생 정재파(22)군이 9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앞서 정군에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박양은 부산여대 3년생으로 그녀의 살해사건때문에 함께 미국연수 길에 올랐던 대학생 장모군이 살인범으로 몰렸다 무죄로 풀려나자, 경찰은 또다른 연수생 정군을 범인으로 지목했었다.

항소를할 것으로 보이는 검찰은 박양의 혈액형과 정군의 승용차 시트에 묻은 핏자국의 혈액형이 동일한 O형임을 증거로 정군을 범인으로 단정했었다.

"미국 가고싶어" 11살소년 출국기도

(서울9일=연합)11살짜리 소년이 대북행(타이페이) 비행기에 불법승선을 기도한 혐의로 8일 김포공항관리에 의해검거됐음이 밝혀졌다.

성이 강씨로만 밝혀진 이 소년은 여권도 없이 타인의 비행기표만 갖고 출국수속을 밟다 걸렸는데, 수중에 갖고 있는여비는 단돈 200원(미화 30센트), 손가방에는 칫솔하나만 들어 있었다.

강군이 갖고있던 대북행 비행기표는 일본인 승객이 공항대기실에서 분실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다.

붙잡힌뒤 강군은, 모더싸이클을 타고 활약하는 경찰이 주인공인 미국 TV극 「CHIPS」를 보고 미국에가서 근사한 구경을하고싶은 꿈에 사로잡혀 출국을 기도했다고 말했다.

◆알 림◆

「한국일보」본지(한국판)는 항공편 연착으로 부득이 오늘 싣지 못하고, 수요판에 실던 「주간한국」을 내보냅니다.

한국판 본지는 도착되는 대로 2일분 합판으로 싣겠사오니,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편집자)

블루어서 폭행사건

경찰, 교포 1명 입건

토론토 제14경찰국은 지난 3일 교포 엄동환씨를 폭행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의하면 엄씨는 이날밤 나이트클럽 오리엔탈·팔레스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교민들과 시비, 폭행을 가했다는 것이다. 엄씨는 이에 앞서 이날밤11시 15분에 블루어·배스트 한인상가근처에서 교포 최모씨에게 폭행

최씨는 이때 상점문을 닫고 부인과 함께 한국식당으로 가던중이었다. 엄씨 일행이 부인을 희롱하자 최씨는 이에 항의했었다.

◀금주의 행사▶

(7월12일～18일)

◆16일(금)하오8시～18일(일)상오5시
청년연합 수양회
강사: 박경남 목사
곳 : 협신선교협회 기도원
연락처: 226～2583

◆17일(토)상오10시－호남향우 야유회
곳 : Boyd Conservation Area
연락처: 651～8835 (장 영대)

◆17일(토)상오10시30분－제6회 연세·고려대학 합동야유회
곳 : Morningside Park
연락처: 연대 298～4480 (조 남수)
고대 661～1819 (정 필주)

◆17일(토)상오10시3분－중앙대학교 동문·야유회
곳 : Morningside Park
연락처: 635～1334 (김 동천)

◆17일(토)하오4시－제2회 한인민족상 시상식
곳 : 토론토한인회관(20 Mobile Dr.)
연락처: 533～2361

◆18일(일)상오10시－중동동문 정기야유회및 낚시대회
곳 : Glen Haffy Conservation Park
연락처: 742～5672 (홍 사겸)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오늘의 예금금리 (6월 23일부터)			
종 별	기 간	신용조합	일반은행
정기예금	30～89일	15%	14.5%
	90～179일	15.75%	15.5%
	180～365일	16%	1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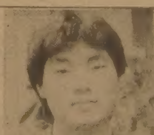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더 드립니다.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533-9387～8

은하 보석
란콤화장품 대리점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귀국선물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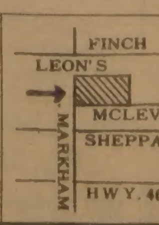
강하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LEON'S 가구점
Leon's
캐나다 최대규모의
Ware House
(Show Room)
SINCE 19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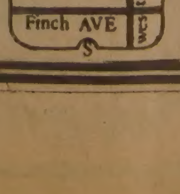


○FURNITURE
CARPETS
APPLIANCES
각종전자제품
(T.V, STEREO, 냉장고, 후리저,
WASHER, DRYER, DISHWASHER,
AIR CONDITIONER, VIDEO 등)
※오시기전에 미리 전화하십시오.
월～토(10 : 00am—10 : 00pm)
20 MC LEVIN AVE.
(세퍼드×마캄)
B)291－3818
R)749－9687,
746－0981
KEVIN CHO(조석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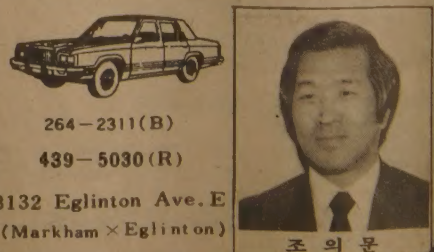


NORTH YORK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 사고차량 완전수리
● 페인팅(OVEN BAKED FINISH)
● 수리중 차량대여
● 각종차량 일체취급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교포우대
송 대 헌
749－0555(B)
881－4053(R)
215 TORYORK DR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STRA, PARK·AVENUE, 벤트럭, USED·CAR
◎차종류에 따라 Cash Rebate(Bonus)있음
◎카나다에서 Buick Line 으로는 Top Sale dealer임
* Best After Service * Best Pr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 의 문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프로야구의 진수 올스타전

내셔날대 아메리칸리그, 총56명 출전

13일 몬트리얼, 전세계에 TV중계

월드컵 축구의 열기가 고조를 띠어 이태리와 서독이 결승에 오른 가운데 북미의 최고인기 스포츠인 야구는 오는 13일의 올스타 게임을 정점으로 더욱 열기를 더해간다. 금년으로 53회를 맞는 올스타게임은 북미의 프로야구(메이저리그) 26개지역팀이 내셔날리그(12개)와 아메리칸(14개지역)팀으로 나뉘어 단판 승부를 겨룬다.

13일밤 8시40분부터 시작되는 53회 올스타게임은 1933년에 시작된후(2차대전등으로 중단)처음으로 미국땅을 벗어나 캐나다의 몬트리얼에서 열린다.

양팀의 선수구성을 보면 우리 귀에 설지 않는 레기·잭슨, 바렌주엘라, 죠지·브렛드등 인기 선수들이 전부 들어 있다.

올스타게임의 선수선발 방법은 26개지역의 팬들의 인기로 선발, 포지션별로 베스트나인을 추린 후, 양팀감독이 금년도 개인성적을 참고, 투수진과 후보선수들을 선발했다.

금년도 프로야구 최고인기선수는 내셔날리그 몬트리얼의 캐처 게리·카터로 1,626,342표를 얻었다. 아메리칸리그 최고 인기선수는 역시 캐처로 시카코·화이트삭스의 칼드·휘스크가 1,413,858표를 얻었다.

내셔날리그의 감독은 작년도 월드시리즈 우승팀 L.A 다저스의 톰·라소다가 맡고있다. 라소다감독은 베스트나인외의 후보선수로 피터·로스(필라델피아)등 12명의 추가 선수와 8명으로 구성되는 투수진을 결정했다.

아메리칸리그 올스타 감독은 작년도 서부지역 우승팀 오클랜드·A'S의 빌리·마틴이맡고있다. 빌리·마틴의 A'S는 작년도 아메리칸리그 결승에서 뉴욕·양키즈에게 3패로 패했으나, 양키스가 금년초 밥·레몬감독을 해임, 마틴이 올스타 감독으로 선발됐다.

마틴은 디트로이트·타이거스와 뉴욕·양키스가 월드시리즈를 제패할때 감독으로, 3년전 양키즈구단주 스타인 브레너에게 쫓겨나 오클랜드로 옮겼다.

마틴은 항상 심판, 구단주를 가리지 않고, 트러블을 일으켜 야구장의 말썽꾸러기로 소문났으나, 팬들에게는 최고 인기를 얻고 있다.

북미프로야구팀 26개팀중에는 캐나다지역팀으로 몬트리얼이 내셔날리그, 토론토가 아메리칸리그 소속으로 2개팀이 끼어 있으나 양팀의 성적은 아주 대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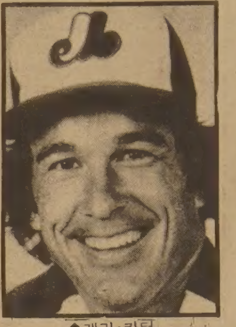
몬트리얼은 70년대 후반부터 리그성적 상위그룹으로 올랐다.

◆올림픽 스타디엄에서 개최되는 올스타게임 마크.

토론토 투수 클랜시만 몬트리얼 카터등 5명

작년에는 내셔날리그 동부조 우승까지 차지한 후, 다저스에게 아깝게 밀려났다. 이번 올스타게임에도 캐처 카터, 외야수 앙드레·도우슨, 팀·레인스가 베스트나인에 뽑혔고, 투수 스티브·로저스, 휘스트 알·올리버등이 선발돼 [illegible] 5명이 올스타선수로 뛰게 된다.

창설된지 6년이나 됐으나, 아직도 아메리칸리그 바닥을 기고 있는 토론토·블루제이스는 대전상 겨우 투수 짐·클랜시(7승6패)가 유일하게 올스타로 선발됐다. 3루수 밥·보넬등도 은근히 올스타를 기대했으나, 최근 타율이 떨어져(0.338) 선발에서 탈락됐다.



◆게리·카터

최근 10년간 내셔날·올스타가 10연승을 거두었고, 아메리칸 리그는 복수전을 있다.

올스타 성적뿐 아니라, 리그가 끝난후 양 리그 우승팀이 대전하는 월드시리즈도 최근 수년간 피츠버그·파이어렛트(79년), 필라델피아·필리스(80년), L.A 다저스(81년)등이 제패하고 있다.

양 리그의 특색은 내셔날리그는 보수적으로 아직도 지명대다제(Designated Hitter)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소속팀은 12개 뿐이다. 아메리칸리그는 이미 10년전 지명대타제를 도입했고, 팀도 14개로 2개나 많으나, 올스타게임에서는 줄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아직 올림픽종목에 가입 안되어 있으나, 미국, 일본, 한국등에서 야구의 인기는 최고조에 달해 있다.

한국에서는 금년부터 프로야구리그가 창설돼 지난 4일까지 올스타게임을 이미 치루었고, 서종철커미셔너는 이번 몬트리얼올스타게임에 참관할 예정이다.

프로스포츠에서 커미셔너의 위치는 절대적인 것으로 선수스카웃, 지역별경기 일정등의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 메이저 리그에는 보위·쿤이 20여년간 커미셔너로 재임하고있으며, 야구에서는 미국대통령이상 가는 권한을 갖고 있다.

13일밤의 올스타게임은 8시부터 CTC(ch6,9,13)과 ABC-TV방송망을 통해 북미전역에 중계되고, 일본 NHK, 한국등에서도 AFKN(주한미군방송)등 동시 중계된다.

올스타게임 선수명단및 8일까지의 북미프로야구 전적은 다음과 같다.

◆내셔날 리그

감독: 톰·라소다(L.A다저스)

투수: 스티브·칼톤(필라델피아), 페난도·바렌주엘라(L.A다저스), 필·니크로(애틀랜타), 스티브·로저스(몬트리얼),마리오·소토(신시내티), 스티브·하위(L.A다저스), 톰·흄(신시내티), 그렉·민튼(샌프란시스코)8명

포수: 게리·카터(몬트리얼), 토니·페나(피츠버그), 존·스틴스(뉴욕·메츠)3명

내야수: 피터·로스(필라델피아), 알·올리버(몬트리얼), 매니·트릴로(필라델피아), 데이브··컨셉션(신시내티), 마이크·슈미츠(필라델피아),봅·호너(애틀랜타), 레이·나이트(휴스톤), 스티브·색스(L.A다저스), 오지·스미스(세인트루이스), 제이슨·톰슨(피츠버그)10명

외야수: 아드레·도우슨(몬트리얼), 팀·레인스(몬트리얼), 데일·머피(애틀랜타), 더스티·베이커(L.A다저스),레온·더햄(시카코·컵스),러베트·존스(샌디에고), 로니·스미스(세인트루이스)7명—총 28명

◆아메리칸 리그

감독: 빌리·마틴(오클랜드·A'S)

투수: 짐·클랜시(토론토), 데니스·에커스리(보스톤), 플로이드·배니스터(시애틀), 론·기드리(뉴욕·양키스), 댄·윈젠베리(캔사스시티), 마즈·클리어(보스톤), 로리·휭거스(밀워키), 라키·거세지(뉴욕·양키스)8명

포수: 칼트·휘스크(시카코·화이트삭스), 랜스·패리쉬(디트로이트)2명

내야수: 로드·캐류(캘리포니아·앤젤스), 보비·그리치(캘리포니아·앤젤스), 로빈·연트(밀워키), 죠지·브렛트(캔사스시티), 버디·벨(텍사스), 세실·쿠퍼(밀워키), 토비·해라(크리브랜드), 젠·허벡(미네소타), 에디·머레이(발티모어), 프랭크·화이트(캔사스시티)10명

외야수: 레기·잭슨(캘리포니아·앤젤스), 프레드린(캘리포니아·앤젤스), 리키·핸더슨(오클랜드), 할·맥래(캔사스시티), 윌리·윌슨(캔사스시티), 벤·오길리브(밀워키), 데이브·인필드(뉴욕·양키스), 칼·야스트로잼스키(보스톤)8명—총28명

◆아메리칸 리그

Eastern Division	승	패	승률	게임차
Boston	48	34	.585	—
Milwaukee	45	35	.562	2
Baltimore	42	38	.538	4
Detroit	40	38	.513	6
New York	39	38	.506	6½
Cleveland	38	40	.487	8
Toronto	36	45	.444	11½
Western Division				
K.C.	47	34	.580	—
California	45	37	.549	2½
Chicago	43	38	.544	3
Seattle	44	38	.537	3½
Oakland	36	48	.429	12½
Texas	32	44	.421	12½
Minnesota	28	58	.309	22½

(7월8일 현재)

◆내셔날 리그

Eastern Division	W	L	Pct.	GB
St. Louis	47	37	.560	—
Phila.	45	37	.549	1
Pittsburgh	42	39	.519	3½
Montreal	42	40	.512	4
New York	38	45	.458	8½
Chicago	33	52	.388	14½
Western Division				
Atlanta	50	31	617	—
San Diego	48	34	.585	2½
Los Ang.	45	40	.529	7
San Fran.	40	45	.471	12
Houston	35	47	.427	15½
Cinci.	32	50	.390	18½

〈유승민 기자〉

社說 조용한 분노

— 트루도의 경제는 낙점 —

사람들이 모든 일에 만능일 수는 없다하더라도 트루도 연방수상은 헌법개정 문제 못지 않게 국가경제에도 신경을 썼어야 옳았다.

이제 너무늦은 것인지 갖가지 처방에도 불구, 캐나다경제는 비관시 될 정도로 악화돼 있다.

1929년부터의 대공황이후, 사상 최초로 1백만명의 실업자 군상이 있으며, 인플레 는 연간 12%를 상회한다. 이자율은 최우대금리가 18.25%나 되어, 작년 여름-가을 기록을 맴돌고있으며, 이에따라 미국 돈에 대한 캐나다달러 가치는 하락일로, 겨우 77센트선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연방정부는 연간 2백억달러의 적자 예산, 이 적자를메꾸기 위해 돈을 찍어내어 인플레 를 부채질하던가, 아니면 금융시장에서 꿔 가야하니 이자율이 더욱 오를 것이며, 국가빚-바로 국민 부담은 가중될것이다.

만일 미국경제가 금년가을 내지 겨울까지 회복의 기미를 보이면 캐나다는 겨우 내년 여름께부터나 한숨을 돌릴것으로 보이는 경제2등국, 이 비참한 현실에대해서 정부는 머리를 싸매고 덤비었어야 한다.

트루도는 야당의 추궁, 국민의 아우성을 "헌법을 영국서 가져온다"는 위대한·역사적 업적으로 짓눌러 단지 피너츠로 무시했던 것이다.

외국인투자심사법 같은 오류로 외국인투자를 줄여 국내실업자는 늘어나고, 이 때문에 이민문은 더욱 좁아졌다.

내년까지 12%의 인플레 를 6%로 잡겠다는,자기도 못믿으면서 마구 뱉는 정치적 발언, 임금·물가통제에 대해 확고한 정책의 부재를 보이는 "이랬다 저랬다"식 답변, 작년11월 제출되어 이미 의회를 통과됐어야 할 본 예산안이 하도 엉망진창이라 끝내 6월28일 다시 예산안을 내놓는 등 많은 국가적 실수에대해 시민들은 조용한 분노를 삼키고 있는 것이다.

트루도가 경제를 악화시킨 장본인이라고 말할수는 없으나 경제문제에 관한한 그는 자신이없었고, 진지하지도 못했으며, 모든노력을 경주하지도 않았음을 우리는 깨닫는다.

트루도를 「위대한 정치가」라고 불러 과히 틀린말은 아니겠으나 그가 바로 서독의 「에르하르트」(전후 서독경제를 부흥시킨 공로자)가 못될바에야 때에따라 진퇴를 결정할 줄 아는 큰사람다움을 보여줄것을 우리는 요망한다.

영화관람료 인하추세 불황타개위한 안간힘

(서드베리)온타리오주 북부의 영화흥행업자들은 불황타개 작전의 하나로 입장료를 절반까지 내렸다.

온타리오주 서드베리의 영화흥행업체 패이머스·플레어즈회사(Famous Players)의 경우 9일부터 개봉관은 성인 $4.25에서 $2.00, 어린이 $2는 $1로내렸다.

수·세·마리와 노스·베이의 패이머스·플레어즈는 성인 $3.50으로 입장료를 내렸다.

토론토지역의 영화관들이 어느 정도로 입장료를 인하할런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국산연고 백경구 캐나다 상륙할듯

(서울9일=연합)무좀·동상·종기에 좋은 연고를 개발한 한국화학자가 미국의 특허를 얻는데 이어, 캐나다와 프랑스의 특허를 신청했다.

화학연구소 연구원인 이배용씨는 자신이 개발한 연고 「백경구」의 효과는 수술에의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제보를 환영합니다

학기가 바뀌는 시즌이 되면서 자녀의 성적표는 부모의 자랑이 되기도, 실망이 되기도 합니다.

학교성적뿐 아니라, 무슨 방면에서든지 우수한 자녀에게는 격려를, 성적이 부진한 자녀에게는 채찍이되기위해 마련한 이 광장에 자랑할 만한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의 제보를 환영합니다.

사진과 함께 자랑거리, 자녀의 이름, 나이, 부모의 이름, 직업, 이민연한, 가족사항등을 〈토론토·한국일보〉편집부로 보내 주십시요.

전화는 533-2361.

새 映画 스타트렉 II

죽은별 찾아나선 커크船長 반기는자는…

20년이 돼가도록 TV에서 재탕삼탕을 하고 있는 시리즈 「STAR TREK」의 인물과 성격 그리고 그분위기에 익지 못한 사람들에겐 「STAR TREK II:The Wrath of Kahn」은 어딘가 맥빠진 하나의 우주공상과학영화일 뿐이다.

「트렉키스」라는 「스타 트렉」의 팬모임까지 생겨 미국인들은 개봉 첫날부터 몇시간씩 기다리고 영화는 떼돈을 벌고 있지만 가끔가다 TV를 통해서 이 우주의 모험담을 본 사람으로선 영화가 구성만 컸지 한 없이 기운이 빠진듯한 느낌.

장내 불이 꺼지고 70mm화면에 광활하고 신비한 우주가 펼쳐지면서 스타쉽 USS엔터프라이즈호가 우리를 밖으로 밖으로 유도한다. 엔터프라이즈호의 임무는 생명의 창조. 생명창조를 위해 죽은 별을 찾아나선 커크선장(윌리엄·쉐트너)을 반기는 자는 15년간이나 그에게 복수하기 위해 와신상담 하던 증오의 화신 칸(리카르도·몬탈반).

그러나 커크는 이제중년의 막바지에 접어들어 스스로를 회의하는데 동료와 선원의 격려에 심기일전 다시 힘차고 권위있는 선장으로 돌아가 아름답기까지한 우주전을 벌인다. 선한자의 승리.

이영화는 이런류의 작품이 남발하는 특수효과를 자제 평화로운 분위기를 주고 있으나 모험영화치고 그 자제가 지나친듯 안이하기까지 하다. 장소와 시간만 미래이지 미래의 인간이 현재와 하나도 다름없이 왕년에 헤어진 아내와 그녀가 낳은 자신의 아들을 감싸 안고 눈물을 질금이면서 센티멘탈 무드마저 뿌려대 지리한데 옆에 앉은 미국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박수를 친다.

TV에서 본 엔터프라이즈호의 주역들이 총출동하며 멋있고 사려깊은 반인간·반우주인으로 뾰족귀를 한 미스터 스폭(레너드·니모이)의 모습이 반가운데 그는 이작품에서 죽어버린다. 트렉키스들은 이 영화가 제작완료 되기도 전 스폭을 죽이지 말라고 소동을 벌였는데 앞으로 계속될 또 속편에선 과연 스폭이 부활할지 두고 볼 일. 몬탈반의 연기가 찬인하도록 차다. 감독 니콜라스·메이어. 파라마운트작으로 등급 PG.

▲스타쉽 USS엔터프라이즈호의 선장과 참모들. TV작품을 큰스크린에 옮긴 공연히 점잔뺀 영화다.

女子의持久力·聽覺 男子보다 우수하다

美래미博士,男女신체차이 연구발표

최근의 신체화학연구는 남녀사이의 신체적차이에 대한 새로운 점들을 밝혀내고있다.

조지타운 의대교수 에스텔·래미박사는 유전자와 호르몬이 남녀의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음과같이 밝히고있다.

여자는 힘이나 속도에있어 남자보다 뒤떨어지지만 장거리수영과같은 지구력이 요구되는 활동에 있어서는 남자보다 더 우수하다. 이는 여자의 지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장시간에 걸친 운동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더 많이 공급할수있기때문이다.

여자는 청각이 남자보다 더 예민하고 야간의 시력이 더 우수하다.

壽命 길고 耐熱力도 體重감소 더 힘들어

여자는 남자보다 체중을 줄이기가 더 어렵다. 그이유는 여자의 신진대사율이 6~7%나 낮아 남자만큼 빨리 칼로리를 소모할수가 없는 점이다.

여자의 체내에서 지방분을 제거하는 것을 돕는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감소되는 폐경기이후에는 특히 체중의 감소가 어렵다.

최신통계는 여자의 평균수명은 남자보다 8년정도 더길다. 성인의 경우 남자는 여자보다 평균 키가 12.7cm크고 체중은 11.3kg더 나간다.

남자는 심한 열에 견디는 힘이 여자보다 약하다. 여자가 남자보다 질병을 잘 견디는 것은 질병과 싸우는 유전인자를 더 많이 갖고있기때문이다.

여자는 남자보다 유전적 결함을 갖고 태어나는 수가 적다. 이는 2개의 X염색체가 있어 하나에 결함이 있는 유전자가 있다해도 다른 1개의 건전한 유전자로 그결함을 메울수있기 때문이다.

◆정 정◆

6일자(화)신문에실렸던 클링턴 호텔(하우스) 골프대회 광고중 참가비 $30이 빠졌기에 바로잡습니다.

체육회 긴급이사회

대한체육회 캐나다지부

※전 이사님들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안 건 : 8.15 경축 제2회 전교민 체육대회 준비에 관한 건
일 시 : 7월19일(월) 오후7시
장 소 : 체육회 사무실 454A Bloor St. W. (미도파3층)
☎ : 533-9336

대한체육회 이사장
원 장 호

한양 중·공고 임시총회 소집

동문제위!
휜뫼에 높고도 푸른뜻으로 한가람에 맑고도 깊은 맘으로…
어언 세월이 흘러 강산도 변했고 우리들 이 이민생활은 안정기반에 들어 섰읍니다.
이제 도약의 새시대를 열기위한 협동의광장으로 그동안 소식이 없었던 한양중·공고 동문은 한자리에 모입시다.

일 시 : 1982년7월31일(토) 밤11시
장 소 : 뉴서울식당 2층(529 Bloor St. W)
안 건 : 1. 회장및 임원선출의 건
2. 가족동반 야유회 건
3. 기타 토의 사항
※재캐나다 거주 동문은 이번 기회에 한사람도 빠짐없이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김오석 534-3648
김덕기 532-1054(제일식품)
김영상 459-3363
박인순 533-3545

한양중·공고
동문회장 김 오 석

김용순 무용연구소

안 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로 무사히 발표회를 마침을 감사드리오며,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오며, 다음과 같이 여름방학 특별강습을 실시코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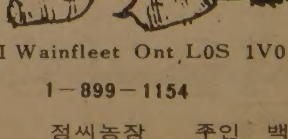
◉강습내용 : 한국무용 및 JASS BALLET
◉시작일시 : 7월9일부터
◉요 일 : 월·수·금
◉시 간 : 오후2시~4시까지
◉장 소 : 한인회관(20 Mobile Dr.)
◉전 화 : 922-2241, 924-3905

정씨농장 채소안내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저희 농장에서는 전국적인 경제불황과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교포여러분의 식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우리의 주식인 배추와 무우를저렴한 가격에 특별봉사 하고자 합니다.

소매가격 ● 배추 16¢(Lb당)
50Lb 1BOX에 $8.00
● 무우 20¢(Lb당)
50Lb 1Bag에 $10.00

일시 : 1982년7월7일부터~
판매장소 : 시내 각 식품점



RRI Wainfleet Ont, L0S 1V0
1-899-1154
정씨농장 주인 백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맘교육강좌〉

복합문화사회에서의 한글교육 2

조 성 준(토론토한인교육연구회장)

◇조성준 씨

현대의 후진국, 또는 중진국에서는경제성장만이 인간의 최고가치인양 잘못 인식되어가는 문화의 흐름을 느끼게 된다. 이와같은 흐름은 선진국에서도 흔히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것도 문화의 흐름이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아무리 짓밟혀도 무조건 그 흐름을 받아주어야 하겠는가 하는 윤리적인 질문이 생긴다.

문화의 지도(Cultural Map)를 잘 읽을 줄 알면 그 문화의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 되겠지만 어느 사회학자가 말했듯이 "문화는 자기를 얽매는 감옥(Prison)"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겠다. 문화속에는 자기의 행동, 사고, 가치관을 규제하는 알쏭달쏭한 여러가지 규칙들이 있는데, 이런 규칙(rule)을 무시할 때 자기자신이 해를 받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문화는 커다란 감옥이 될 수 있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화라는 감옥의 작은 창구(window)를 통해 밖의 세상을 보게된다. 즉 자기가 태어나서 성장한 문화의 경험을 통해 사건을 처리하고 평가하게 된다는 말이 되겠다. 그러나 어느 민족이고 자기의 문화(감옥)를 아주 미화하여 우리의 문화만이 세계에서 제일 으뜸인양 수식해 오고 있다.

우리는 한국문화를 소개할 때 "삼천리 금수강산"에 "동방예의지국"으로 표현하지, 동족상쟁의 6·25사변을 말하지 않는다. 긍정적인 자기문화 표현은 어느 민족이든 공통적으로 쓰고 있다. 이런 현상을 사회학에서는 에트노센트릭(Ethno centric)이라고 한다. 반 인종주의자로 널리 알려진 하와드·그리픈의 말을 빌리면 어느 민족이고 자기들이, 그리고 자기의 문화가 다른 민족과 그 사람들의 문화보다 우세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한다. 이와같은 편견은 주로 성장과정에서 자기들의 부모를 통해 배우고, 학교에 가면 역사교과서에서 흔히 배우고, 어른이 되면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에서 배우게 마련이다. 내가 믿는 종교만이 유일한 종교이고, 내가 나가는 교회가 제일 좋다고 믿는다.

고유문화 지키면서 다른문화 존중해야

필자는 소년시절에 어느 영국의 신문기자가 한국을 방문한 다음에 자기 소감을 말하기를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는 것은 마치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어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몹시 격분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런가 하면, 「알쏭달쏭」이라는 책을 쓴 일본의 작가가 수년전에 한국을 방문하고, 일본으로 귀국한 다음에 한국방문 소감을 쓴 글 생각이 난다. 이 작가가 한국방문시에 한국의 모 대학의 교수이며, 정부고관들이 관광안내역을 하겠다고 아첨을 떨고있을때, 한 젊은 대학생이 포장이 잘된 선물을 자기에게 선사하면서 지금 끌르지 말고, 호텔에 가서 풀어보라고 하더란다.

호텔에 와서 그 잘 포장된 선물을 풀어보니까, 예쁜 휴지에 흉칙한 가래침이 싸여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런 사건의 경험을 통해 이 일본작가는 말하길 한국의 기성세대는 부패했을지 몰라도 한국의 젊은이들은 살아있다고 한국을 평했다는 것이다.

영국의 신문기자와 일본의 작가가 보는 한국인과 한국의 문화는 판이하게 다른것 같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종종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외국사람 몇명을 상대로 하여 그 외국인의 문화 전부를 보편적(Generalization)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편견을 범하기 쉽다는 것이다.

문화는 반드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 실례는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언어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말 표현에도 "야, 문닫고 들어와라"라는 말이있다. 들어온 다음에 문을 닫아라 하는 것이 맞는 말이지만 전자가 후자보다는 우리 귀에 자연스럽게 들리고, 바로 그런것이 문화에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대화스타일이다. 그래서 문화를 배울 수는 있지만 몸으로, 그리고 감각적으로 뿌리깊게 느끼려면 적어도 한 문화권에서 15년은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에드워드·헐(Edward Hall)이라는 미국의 저명한 인류학자의말을 빌리면, "우리가 우리 문화만 알고 남의 문화는 전혀모르면 사실은 우리문화도 모르는 것과 같다" 그 이유로서는 다른 문화를 모르니까 비교대상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는 복합문화사회에서 살면서 우리의 문화전부를 버리고, 남의 문화만 모방해서도 안되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문화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우리 고유의 문화만을 지키는데 급급하면 결국은 퇴보하는 소수민족의 위치에 처할수 밖에 없겠다. 우리 문화의 좋은점을 우리 후손에 물려주면서 동시에 남의 문화의 좋은점을 배우고, 존경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성숙한 시민으로서 복합문화사회에서 발전해나가리라 믿는다.

(계 속)

◆믿기지 않겠지만 분명히 살아 움직이는 인간들이나. 이들은 극격한 노화의 요인이 되는 프로제리아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왼쪽부터 벡키·몰트로스군(15세), 날라시아 가운잔스양(12세), 메그 캐이시양(26세).

金聖鍾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24〉

冷血 ⑧

그날밤따라 남편은 아이처럼 보챘다

남편은 계라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아내에게 계 따위는 집어치우라고 달랬지만 그녀는 으레 그러려니하고 한 쪽 귀로 흘려버리곤 했다. 그녀는 전문적인 계꾼으로 현재 들어있는 계가 십여군데나 되었다.

『식당 같은데서 계돈을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을 보면 정말 꼴불견이야. 제발 그런 짓 그만하라구.』

『염려 마세요. 그래도 그만한 이자가 없어요.』

『그런 짓 안 해도 먹고 살만하잖아. 너무 욕심부리다가 데이기라도 하면 어쩔려고 그래.』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다 믿을 만 하니까.』

한기수는 섬세하고 선량한 남자였다. 그리고 내성적이었다. 거기에 비해 박문자는 외향적이고 공격적이었다. 좋게 말해 활달한 성격이었다. 그래서 언제나 남편을 이기고 들어갔다. 한기수는 물론 처음에는 자기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만 나중에는 자기 주장을 슬그머니 감추는 버릇이 있었다. 이를테면 그것을 남자의 미덕으로 알고 아내에게 으레껏 져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자는 남편이 겉으로는 그렇게 약해 보이면서도 사실은 매우 냉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소심하고 냉정한 사람이니 만일 아내의 부정을 알게될 경우 결코 용서하지않을 것이다. 두번 다시 쳐다보지않고 떠나버릴 것이다.

『저녁 안 먹었을 텐데 먹지그래.』

『먹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녀는 저녁도 거른채 욕실로들어가 몸을 씻었다. 모세의 체취와 흔적을 하나 남김없이 지우려는듯 씻고 또 씻었다. 예민한 남편이 사냥개처럼 냄새라도 맡을 까봐 은근히 겁이 나기도 했다.

그날밤 따라 남편은 아이처럼 보채는 것이었다. 먼저 벌거벗고 누워서는 몸을 씻고 들어온 그녀를 이리저리 만지면서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 문자는 몹시 당황하고 곤혹스러웠다. 오늘 밤만은 어떻게든지 남편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모세에게 너무 시달려 진탕도 있었지만 불과 수시간전에 외간 남자를 받았던 몸으로 차마 남편을 다시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너무도 남편에게 죄스러운 짓이었던 것이다. 남편까지 받음으로써 만일 내가 임신하게된다면 그 아이는 누구의 씨란 말인가. 안 돼. 오늘 밤은 안 돼.

『아이 저 오늘 밤은 피곤해요. 그냥 자요. 밤도 깊었으니까. 내일 근무하시는데 피곤하잖아요.』

『내일은 일요일이야.』

잠옷을 걷어 올리고 엉덩이를 슬슬 쓰다듬는다.

『아 피곤해서 죽겠어요.』

『당신 히프는 먼로 히프 같단 말이야. 날이 갈수록 커지는 것 같아.』

그녀는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냥 주무세요.』

『난 컨디션이 최고야.』

엉덩이를 슬슬 비벼댄다. 유방을 만지던 손이 어깨를 밀어젖히자 새우처럼 웅크리고 있던 그녀의 몸이 천장을 향해 반듯해졌다.

『미안해.』

그는 날쌔게 아내를 품안에 안았다. 문자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절망적인 기분으로 그를 받아들였다.

그는 어느 때보다도 정열적으로 대했다. 마치 자신의 정력을 과시하기라도 하는듯.

朴 男 그림

한국일보는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일간신문입니다

프로축구 블리쟈드를 즐기자
입장권 예매처
한국일보사 533-2361
브랜돈스포츠 598-3732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 영 철

즐거운 서울방문은!
도와드리겠읍니다.
서울행 매주 출발
이민, 방문 초청안내
국내, 국제항공표
535-6004 535-8801
신속, 정확한 컴퓨터 써비스
서울여행사
IATA
631 A BLOOR ST. W. TORONTO.
최 동 주 ®293-9970

성공회 예배안내
금번 새로 석신부님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예배를 갖아오니
교민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 시 : 매주일 오후1시
장 소 : CHURCH OF THE NATIVITY
본당신부 : 석 균 우(마가)
신자회장 : 윤 종 석(요한)
사제회장 : 김 성 진(안토니)

석 균 우 신부
성공회토론토한인교회
1301 Neilson Rd. (스카보로 지역) (Hwy 401 ×Neilson)
성공회 교인 일동

부동산 및 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각종의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 대지, 상가, 사업체, 투자처, 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 무역회사 경영(뱅쿠버)
★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 온타리오 부동산 브로커

전화 : 〈B〉 (416)497-8900 채 준 성
〈R〉 (416)633-7892 (David Ch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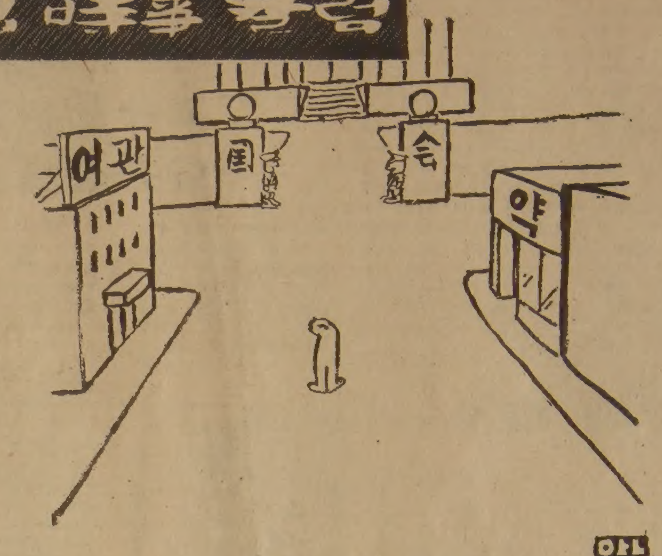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週刊한국

Benjamin Moore PAINTS
블루어 하드웨어
전기제품 일절
가정용, 공업용 TOOL.
재료일절
판매수리
번 의 섭
주소 : 608 BLOOR ST. W.
전화 : 531-6183

안의선 時事 칼럼

높혔다가…내렸다가…
주였다가…뺏었다가…
넓혔다가…좁혔다가…
깎았다가…불렸다가…
쏟았다가…담았다가…



단골이 있을것 같애서—

「한국名作」속의 숨은그림 찾기

朱耀燮의 「사랑 손님과 어머니」

◇朱耀燮

주간女性 (416) 533-2361

나는 금년 여섯 살 난 처녀애입니다。내 이름은 박옥희이구요。우리 집 식구라고는 우리 어머니와 단 두 식구뿐이랍니다。아차 큰일났군, 외삼촌을 빼놓을뻔 했으니。

지금 중학교에 다니는 외삼촌은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는지 집에는 끼니때나 외에는 별로 붙어 있지를 않아 어떤 때는 한 주일씩 가도 외삼촌 코빼기도 못보는 때가 많으니까요。깜박 잊어버리기도 예사지요。뭐얘。

우리 어머니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둘도 없이 곱게 생긴 우리 어머니는 금년 나이 스물네살인데 과부랍니다。과부가 무엇인지 나는 잘 몰라도 하여튼 동리사람들이 날보고 「과부딸」이라고들 부르니까 우리 어머니가 과부인줄 알지요。남들은 다 아버지가 있는데 나만은 아버지가 없지요。아버지가 없다고 아마 「과부딸」이나 봐요。〈作品中에서〉

■숨은 그림
비둘기 활 화살
총 모자 은행잎
붓 만년필 말밤
고추 도장 낚시찌

구성·權大雄

●女子 사흘만 안 패면

우리나라 옛 속담에 마누라 혹은 계집은 3일에 한번 패주지 않으면 여우가 된다는 말이 있다。물론 3번을 패지 않아도 여우가 안되는 여자도 많을 수는 있다。

朴承薰교수 特講 섹스의 社会学 ⑨

우리는 밤 혹은 아침 거리 모퉁이에서 남편인 듯한 남성에 자기마누라로 보이는 여인을 푹푹 패주고 있는 꼴을 간혹 보게된다。그럴 때마다 남성의 무지를 누구나 직감할거다。주먹으로 패주라고 한게 아니다。

우리 옛 선비들은 지나치게 천사들이었다。섬나라 칼벽 있다는 사무라이들은 자기 계집을 무우 자르듯 했고, 도벽 있다는 대륙인들은 자기 여편네 달아나지 못하게 전족(纏足)을 만들어 궁후식으로 했다。그러나 없으면 먹고 없으면 굶는 검삿갓선생식 결벽을 지닌 우리 선비들은 칼이나 주먹이 아닌 바로 가운데 달린 그 물건으로 사흘에 한번은 빠로 그곳을 패주라는 뜻이었다。

섹스사회학에 도사가 된 분들이 우리 선비 조상들 가운데는 우굴우굴 했다는것을 이 짧은 속담 하나로 족히 짐작할 수 있다。

중동·아프리카·서독 어디고 얀간대없이 우리도 진출, 땀흘려 화폐를 벌고들 있다。좋은 일이다。땀흘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한 성경말씀은 진리다。그 일 한만큼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잘살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밀폐된 세계서 고립된 숨을 쉬다가는, 질식할 수 밖에 없다。그런데 여기 문제 하나가 등장한다。마누라 간수문제가 그거다。

얼마전 M16소총 강도음모 사건주범(35세)과 정부(33)의 사건도 바로 그거다。중동으로 마누라가 보내온 고추장을 친구들이 잘못 먹고 죽을 사를 한일도 있다고 한다。정부와 놀아난 마누라가 남편이 먹고 죽으라고 보낸 고추장 속에 독을 넣은 거다。

이번 서울시 「가정부녀 상담10년」이란 책자가 발간된것을 보아도 유부녀들의 가출, 방황이 늘어나고 있다。섹스관계, 애정, 가정불화등이 불씨가 된 것이 그 대부분이다。

나이가 많아 질수록 더 심해져서 어떤 가출, 섹스방황이 고령화(高齡化)되고 있다는게 최근 추세의 보도다。오히려 나이 어린 서골처녀들의 무작정 상경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다。

파독 광부인 남편이 송금한 돈을 사련에 몽땅 다 탕진해 버리고 강도 모의에 발을 벗고 나섰다가 끝내는 주범 35세의 손으로 자청 교살을 당한 정부 33세를 생각하면 분노에 앞서 측은하다。

그게 얼마나 하고 싶었기에 그게 얼마나 씨앓는 고양이 정도 견딜수 없었기에 그렇게도 참을 수가 없어 전과있는 제비족과 그정도까지 빠져 숨져가야만 했나하는 점이다。

두 어린 딸의 네 눈망울도, 우직했을 그녀 남편의 두터운 삶의 의지도 그녀를 붙잡을 수가 없었다는 결론이 된다。

그 여인을 사로잡은 것은 죽음의 탱고 외에는 없었던 거다。그 정도로 아무도 사로잡지 못하는게 바람난 여인의 섹스다。그 여인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은 전과를 듬뿍 지닌 카바레 제비족의 불쑥 나온 아랫도리 하나였던 거다。바지 포키트에 탁구공을 넣고 다리와 다리를 피아 돌리는 데도 녹는데 이건 진짜 탁구알로 비벼댔으니 견딜리가 없다。

불 지르면 꺼질줄 모르는게 여성의 성욕이다。남성이 섹스에 합리적 여유와 여운을 지니는 늑대라면 좀한 이성을 가지고서는 여운이고 여유고 나발이고 섹스면에서는 없는게 여우의 본성이다。처절할 정도로 동물이 되는 거다。

낮에는 현모, 밤에는 요부가 현모양처의 생활이라고 하는데 바로 요부의 동의어가 여우다。

첫번 키스를 당하고, 첫번 아랫도리 거습을 당했을 때는 저항을 느끼지만 여체는 이상야릇한 여우의 본질이 있어 시간이 지날 수록 그게 진짜로 불쾌한게 아니라 남성의 힘에 대한 복종욕(服從慾)으로 둔갑되고 만다。실로 알다가도 자기도 모를게 바로 여체다。

사흘 안해주다가도 신나게 해준 다음날 아침이면 마누라는 장을 뜨러 가는데도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면서 흥겨운 콧노래를 흥얼대지만 나흘이 지나도록 안해주면 밥상에 간장 하나만 놓고도 돈을 안벌어와 이꼴이라고 바가지를 긁고 퉁명 혹은 토라져 있다는 글을 연암 박지원(燕岩 朴趾源)같은 위대한 선생도 기록한바 있다。

옛 기록보다 오늘은 더 처절할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그러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열나게 해주면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냐는 문제는 의문으로 남는다。

해주되—호되게 흠뻑 빼는거다。그렇게 만족을 주고 나면 3일 정도는 무난하다는 거다。그 횟수만으로 여우가 안된다는 보장은 없다。

킨지 보고에는 하루 2번 정도 남편을 봐주는 여인일 수록 외간남자를 본수가 많다는 통계다。때문에 횟수가 하루 2번이라도 안심될 문제도 아니다。

요는 감창(甘唱) 요분 그리고 속필로 남편의 고생을 덜어주는 특수채질이 아닌 마누라는 3일에 한번은 제아무리 피곤해도 호되게 끝내는 습관에 익혀야 된다는 결론이다。

정부 신여인(33)이 자청 교살로 숨질 때 그녀의 뇌리 속에는 자기 부모의 정자와 난자가 아예 만나지 않았어야 하는데 라는 몽롱한 의식 속에 갔을 거라는 동정이 간다。이런 비극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일 거다。

마누라 전사에 각별히 신경을 쓸 때다。네가 내게 무엇을 해주었나를 묻기 전에 내가 네게 사흘마다 신나게 해주었나를 먼저 묻고 생각해 보라고。케네디의 말을 이렇게 전용해 보면 이 경우도 안성마춤이 된다。〈계속〉

DOMINION SMALLWA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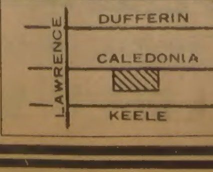
Cash & Carry 에 한함

June 28 - July 17

		SPECIAL
Y & S Twizzlers	60x10¢	$ 2.75 per box
Buy a Case (12)		2.65 per box
Y & S Twizzlers	24x40	6.39
Vicks Prepack	6x20x40	29.55
Tootsie Pop Top	50x10	2.40
Sweet Tarts	48x10	3.16
Giant Tarts	36x10	2.37
Dare Peg Top Candy	12x1.39	9.80
Allen's Big Foot	100x.5	2.89
Allen's Ribbons	48x10	2.89
Allen's Laces	60x.5	1.79
Taveners Tin Candy	1x1.95	1.19
Life Saver Bubble Yum (orange only)	18x30	3.09

7월10일~8월14일 : 이 기간동안은 토요일에 문닫음.

DOMINION SMALLWARES
920 CALEDONIA RD.
789-7214(MR. 김)



협조해 주십시오!!

성하의 계절을 맞아 귀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빕니다.

저희 한인양로원건립추진위원회는 '양로원 건립사업의 기초작업으로 여러 양로원(Nursing Home)에 산재해 계신 어른들의 실태파악에 착수했읍니다.

이것은 종국적으로는 한인전용 양로원을 건립하거나 또는 교포 어른들을 기존양로원 한곳에 수용, 언어장벽등에서 오는 불편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온타리오보건성및 사회성은 호의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캐나다정신건강협회(Canadian Mental Health Association) 온타리오지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온타리오너싱홈협회(Nursing Home Association)와 최선의 길을 모색하고 있읍니다.

양로원 건립은 현단계서는 불가능한 엄청난 사업같기도 합니다만 누군가는 먼 안목으로 시작해야 하겠기에 우리는 미력하나마 그 주춧돌이 되고자 나선 것입니다.

대단히 공·사에 바쁘시겠지만 교포 노인들, 내지는 장차 우리들 자신의 노후를 위한 일임을 유의하셔서 해당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 우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입원자 성명 ____________________
생년월일 ____________ 성별 ____________
양로원 이름 ____________________
양로원 주소 ____________________
입원일자 ____________________
가족성명및 주소 ____________________
가족 전화 ____________________

● 보내실곳 : The Senior Citizens Home Development Society
6042 Paddle Road, Mississauga, Ontario L5N 1X7

한인양로원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천중환 · 이사장 김명규 드림

한국일보事件기자 수첩

신문에 안난 現場

현역 국회의원이 간통죄로 구속됐고, 가단한 시골학교 교사가 부인의 곗돈등 1억원의 빚에 시달리다 목을 매어 자살했다. 사회적 위치가 남 달랐어야 했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라서 충격 또한 큰것 같다. 또 남편이 부부싸움끝에 아내를 교살한 사건, 남편대접을 안한다고 세차공이 처자를 살해한 사건등 한국일보 「사건 기자수첩」은 지난 한주동안 퍽 어지러웠다. 탁구공에 맞아 1주간의 상처를 입은 사진작가의 입원사건이 없었더라면 이 한주가 얼마나 우울했을까 싶다.

탁구공에 맞아입원한 사진작가

현역 국회의원의 간통혐의

고소장엔 通情 3、4회…검찰은 20여회

■충격준 불륜행위

▲현역국회의원이 간통혐의로 구속돼 충격을 던졌다。

서울지검형사1부는 지난달29일 民韓黨소속 국회의원 韓英洙씨(47·충남 瑞山·唐津지역구)를 간통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韓씨는 지난해2월15일 남편이 있는 가정주부 朴仁淑씨(35)와 서울 남서울관광호텔에서 첫 관계를 맺은후 지금까지 남서울관광호텔·유성장여관·삼정관광호텔등 서울시내 3군데의 호텔과 여관을 돌아다니면서 20여차례에 걸쳐 불륜행위를 가져온 혐의다。

검찰은 지난달 28일상오 朴씨남편의 고소장을 접수、이날 하오3시께 서울江南區三成洞 삼정관광호텔에서 동숙현장을 덮쳐 韓씨와 朴씨를 연행、조사해오다 28일 두사람을 모두 구속했다。

韓의원은 미 국무성 초청으로 약 1개월간 미국을 방문하고 지난25일 귀국했었다。

朴여인은 E여대약대출신으로 지난 74년 서울종로구인사동에서 약국을 경영할때 新民黨소속의원이던 韓씨의 사무실이 근처에 있었는데다 사돈간이어서 쉽게 가까와진것으로 알려졌다。 朴여인은 韓의원의 처남댁 어모이다。

朴여인의 남편(35)은 공무원으로 두사람은 지난70년에 결혼、중학1년짜리 아들(13)등 3남매를 두고있으며 남편이 서울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9월 전남지방으로 전보된후 朴여인은 아이들 교육때문에 서울에서 지내왔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韓씨와 朴여인은 지난해 2월 첫번째 관계를 맺은 이후 구속되기 전까지 한달에 1~2회씩 밀회한것으로 나타났는데 6월에 들어와서는 만나는것이 뜸했다가 눈치를 챈 남편에 의해 현장을 들켰다는 것이다。

남편과 부인 朴여인은 근년에 사이가 벌어져 부부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韓의원과 朴여인은 남편이 지방으로 전보되기 전인 1년여 전부터 관계를 가져왔다고 한다。

한편 韓씨 변호인단인 民韓黨의 朴炳一、睦要相、李官炯의원은 30일 하오『이번 사건은 朴仁淑여인의 남편이 이혼심판청구를 하기전에 검찰이 위법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했거나 아니면 고소장이 접수되지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수사에 착수한것 같다』고 주장했다。 간통죄의 경우 배우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에 착수할수 없고、이혼 심판청구소송제기증명이 고소장에 첨부돼야 함에도 검찰측은 朴여인의 남편에게 이혼심판청구제기증명이 발부된 28일 하오5시 이전인 28일 상오에 고소장을 접수해 법절차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변호인단은 남편의 고소장에 통정 사실이 3、4회로 기재됐는데도 검찰이 20여회로 단정한것은 친고죄의 不告不理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事件기자 수첩

주운 돈으로 이웃초대해 불고기 파티

▲지난달 29일 서울영등포경찰서는 朴三[illegible]여인(42·영등포 3동6-18)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입건했는데 경찰조사에 따르면 박여인은 지난 22일 하오1시께 동네 골목길에서 현금 10만원이 든 봉투를 주웠는데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않고『주운돈은 빨리써버려야한다』면서 전기밥솥·전기밥통·아이들 신발등을 사뒤 남은돈 5만원으로는 이날저녁 친한 몇몇 이웃들을 자기집에 초대、불고기파티까지 벌였다는 것이다。

차여인이 경찰에 입건된것은 어날따라 돈을 마구쓰는 것이 이상해 내막을 알아낸 이웃(불고기파티에 참석못한사람)의 신고때문이었는데 차여인은 경찰진술에서『나혼자 쓰지않고 이웃사람들과 같이 쓴것인데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느냐』며 누군지 모르는 신고자를 원망하더라고。

대낮 빈집만 턴 10代절도단

■아침에 복면강도 침입

▲지난달 27일 상오10시께 서울시용산구청파동2가47의28 趙美子씨(42)집에 복면강도가 침입、혼자 집을 보던 趙씨를 식칼로 위협하고 나일론끈으로 두손을 묶어 장롱속에 가둔다음 지갑등을 뒤져 현금 70만원을 털어 달아났다。

趙씨는 30여분동안 장롱속에 갇혀있다 질식직전 장롱문을 발로 차고 나와 화를 면했는데 지난80년 6월초에도 밤에 강도가 들어 남편과 격투끝에 범인은 그대로 달아났는데 남편은 범인이 휘두른 칼에 손가락이 잘리는등 중상을 입기도 했었다는 것。

▲서울마포경찰서는 대낮에 빈집만을 골라 금품을 훔쳐온 崔모군(18·서울시동대문구망우동)등 10대절도단 8명을 검거、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黃모군(18·〃청량리동)등 3명을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하오 3시께 서울마포구동교동 179의31 柳美淑씨(30)집 대문 초인종을 누른후 응답이 없자 담을 넘어들어가 안방 장롱속에 있던 현금36만원과 카메라등 50여만원상당의 금품을 훔친것을 비롯、지난5월초부터 지금까지 마포·청량리일대를 무대로 15차례에 걸쳐 1천여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쳐 왔다는 것이다。

두 高校生、세든 여인집 털고 욕도보여

▲서울태릉경찰서는 지난달28일 李모군(17·D상고2년) 朴모군(K공고2년)등 고교생 2명을 특수강도및 강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2명의 고교생은 27일새벽3시10분께 李군집 건넌방에 세들어 사는 裵모씨(여·32)의 방에 들어가 경대、서랍등을 뒤지던중 혼자 잠을 자던 裵여인이 잠을 깨 소리를 지르자『소리지르면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裵여인 입에 파스를 붙인뒤 번갈아 욕을 보인 혐의다。

■疑夫症부인 교살

▲서울강동경찰서는 林明男씨(34·약사·강동구암사동 암사시영아파트5층305호)를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林씨는 27일하오 3시께 평소 의부증이 있던 부인 黃美子씨(39)와 사소한 말다툼끝에 부부싸움을 벌이던중 黃씨가 식칼로 林씨의 왼쪽다리를 찔러 상처를 입히자 이를 치료하고 돌아온 28일새벽1시께 다시 싸우다 黃씨를 목졸라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林씨는 부인을 교살한뒤 경찰에 자수했는데 경찰에서 林씨는『1년전부터 정신질환증세로 통원치료까지 받아온 아내였다』면서 의부증이 심해 부부싸움이 잦았었다고 말했다。

"남편대우 안해준다"고 妻子죽인 남편도

▲곗돈을 가지고 집을 나간뒤 주부가 젖먹이와 함께 산속에서 시체로 발견된 모자 피살사건의 범인은 피살자의 남편으로 혐의가 물아갔다。

서울시성동구금호동 3가494의3 文貞植씨(27)는 지난달27일 하오 시내동교동에 사는 계주집으로 곗돈5만원을 내기위해 집을 나갔다고 하는데 28일하오5시께 서울서대문구연희1동182 뒷산중턱에서 생후4개월된 남자아이를 업은채 숨진 시체로 발견됐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시체발견 이틀뒤인 30일、숨진 文씨가 곗돈을 내러 나갔던것이 아니라 남편 金昌錫씨(31·세차공)와 함께 나갔다가 남편의 손에 피살된것을 밝혀냈다。

경찰은 남편 金씨로부터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는데 金씨는 지난27일 하오6시15분께『산책이나 하러가자』며 부인 文씨를 데리고 택시를타고 연희동 삼거리에서 내려 인근 K설렁탕집에서 저녁식사를 한다음·밤8시20분께 文씨를 1㎞가량 떨어진 범행현장으로 유인해 文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린후 옆에있던 돌로 이마를 쳐 숨지게 했다는것이다。

金씨는 또 文여인이 쓰러진 후 등에 업혀있던 생후4개월짜리 장남 용민군이 울음을 터뜨리자 손바닥으로 가슴을 쳐 숨지게 했다고 한다。

金씨는 경찰에서『부인 文씨가 평소 모욕적인 말을 마구 할뿐아니라 밥도 제대로 차려주지 않는등 남편대우를 해주지 않아 살해하게 됐다』고 진술。

■본드10代、모친에 폭행

▲본드냄새를 습관적으로 맡아오던 10대소년이 끝내는 가재도구를 부수고 어머니에게 폭행까지 한 패륜아로 전락했다。

서울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8일 金모군(18·서대문구홍제동)을 특수물및 극물에관한 법률위반혐의와 존속폭행혐의로 구속했는데、金군은 지난해 9월부터 부모 몰래 습관적으로 비닐봉지에 공업용본드를 짜넣고 냄새를 맡으며 가재도구를 부수는등 행패를 부려왔는데 지난 26일에는 어머니(44)의 머리채를 잡아채 마루바닥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는 것이다。

▲미화4만달러를 숨겨가지고 공항을 빠져나가려던 브라질교포가 잡혔다。 서울강서경찰서는 교포 金鐘振씨(38·사웅파울루시거주·의류상)를 외환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는데 金씨는 지난 24일밤 11시께 김포공항에서 1백달러짜리로 4만달러를 양복윗옷 안주머니에 넣고 나가려다가 세관당국에 적발된것이다。

金씨는『서울에 살고있는 어머니 집을 사드리려고 가지고 왔던것인데 어머니가 잘살고있고 어머니이름으로 집을 매입할경우 증여세가 많이 나올것이라고해서 도로 가져 나가려고했다』고 말했다。

▲부처님재산을 팔아 몰래 삼킨 사찰사무장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경은 지난달28일 대한불교조계종산하 사찰인 榮華寺소유 대지를 몰래팔아 그 대금중에서 절반가량을 가로챈 전 榮華寺사무장 申鳳均씨(57·은평구응암동95의15)를 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申씨는 지난79년 11월20일 사무장으로 일할때 전주지인 황모씨와 짜고 榮華寺소유대지 1천5백63평(시가3억1천5백만원)을 李모씨에게 몰래 팔아 넘기고 대금중에서 1억5천여만원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진짜중에 잡힌 가짜중

▲술을 마시고 다방에서 시주를 받던 가짜중이 진짜중에게 덜미를 잡혔다。

지난달 30일하오4시반께 서울동작구 본동127 은하수다방에서 술을 마신채 염불을 하며 시주를 받던 가짜중 文永哲씨(54·경기도안양시석수동 산17)가 때마침 다방에 와 있던 무량사 주지 李台淳스님(45·서울동작구본동127)에게 발각돼 경찰에 넘겨져 즉심행。

李스님에 따르면 신도가 많은 약속이 있어 다방에 들어서는데 文씨가「우물물도 남에게 주어야 공덕이 된다」「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등 거짓염불을 외우고 있어 파출소로 데리고 갔다는 것이다。

경찰은 文씨가 소속돼 있다고 주장하는 太古宗에 조회한 결과 文씨가 승적에 오른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는데 보호실에 갇힌 文씨는『내가 진짜 중이라는 사실은 부처님만이 안다』며 계속 강짜。

가난한 국민교 교사가 부인이 진빚 갚지못해 자살

▲부인이 진빚 1억여원을 갚지못해 고민해오던 국민학교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충북충주시복발동소재 삼원국민학교교사 李海正씨(37·충주시교현동623의9)가 지난달27일상오9시께 자기반교실 출입문틀에 나일론끈으로 목매 자살했는데、李교사는 부인 沈在鳳씨(31)가 계를 하다가 진 빚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 1억여원에 이르자 이를 해결할 방법을 놓고 오랜동안 고민했으나 길이없자 자살길을 택한것으로 알려졌다。

이교사는 자살전날인 26일밤에도 자기집에서 음독자살하려다 가족들에게 발각돼 실패하자 이튿 새벽 학교로 나와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이라고。

<삽화·楊大雄>

■탁구공에전치1주의상처

▲탁구경기장에서 사진을 찍던 사진작가가 탁구공에 눈을 맞아 전치1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청주시사직동236 吳高鉉씨(39·사진작가)는 지난달19일 청주고동학교 강당에서 열린 전국탁구동호인 대항 탁구대회광경을 찍고있던중 날아온 탁구공에 오른쪽 눈을 맞아 부상、청주도립의료원으로 옮겨졌는데 1주일동안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는것。

입원실에 누워있는 吳씨는『찾아오는 친지들이 탁구공에 맞아 입원했다는 말을 믿지않아 야구공에 맞았다』고 본의아닌 거짓말을 한다고 하소연。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방에서 택시를 대절、서울까지 올라온후 요금10만원을 안주고 달아났던 대여트족 남녀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30일 경찰에 잡힌 김성수씨(30·청소부·서울시강동구마천동128의1)와 장경숙양(22·서울시강남구방포2동69)은 28일하오3시40분께 전남광주에서 빈차로 서울로 가던 서울3하1156호택시(운전사 박현태·27)를『서울가서 10만원을 주겠다』고 전세내 도착한 다음 요금을 주지않고 달아나다가 운전사에게 붙잡힌 것이다。

경찰에 잡혀와 주머니를 털었으나 빈털터리 였던 김씨는『애인앞에서 호기를 보이려고 택시를 탔었다』면서 본수를 지키지않은 자신을 뉘우쳤다고。

▲지난해7월부터 경기도이천군일대마을에 나타나 가축들을 잡아먹는등 피해를 주어온 늑대는 지난달29일 한 주민이 공기총으로 사살한 결과 늑대가아니라 집을 나가 야생화한 들개로 밝혀졌다。

이 들개는 지난해부터 이지역에 자주 출몰해 주민들은 늑대로 알고 소동이 났었는데 이날 상오9시께 이천군설성면장천리136 박원태씨(46)집 부근에 나타나 염소를 잡아먹으려는 것을 같은마을 김연기씨(29)가 공기총으로 사살했었다。

누런색의 수놈인 이 들개는 몸길이가 95㎝、키 60㎝ 몸무게 12㎏으로 큰 진도개만 했다고。

40대 女人 고위층 친척 詐稱하고 4천여만원 가로채

▲서울중부경찰서는 모기관의 높은사람의 친척을 사칭하고 돈을 뜯어낸 전과있는 40대여인을 구속했다。

지난달30일 사기혐의로 구속된 임영남씨(47·여·경북안동시옥정동453의2)는 지난79년9월초 박원길씨(40·서울시성동구용답동50의18)에게『모기관 고위층의 조카이며 김모국회의원도 잘안다』며 접근、돼지도살회사인 서울성동구마장동소재 우성농역주식회사에서 나오는 돼지털등 부산물을 독점매입토록 해주겠다며 지난 3월말까지 31차례에 걸쳐 총4천1백여만원을 교제비조로 가로챘다는 것이다。

▲서울시경은 빚안갚는다고 채무자를 감금、폭행한 金顯泰씨(28·무직·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시범아파트3동26호)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폭력조직인『광주서방파』일당인 金씨는 지난4월2일새벽1시반께 서울강남구논현동소재 삼정호텔606호실에서 자신에게서 1년전에 빌어간 원리금 1백10만원을 돌려주지않는 이용진씨(27·강남구대치동은마아파트29동765호)와 李씨의 친구 설미재씨(25·강남구서초동진흥아파트2동103호)등 2명을 2시간동안 감금、마구때려 각각 전치6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다。

〈기획·정리 崔升[illegible]기자〉

讀者漫評

공처가 낚시광
황학도 (도봉구 황1동 304)

海外걸작漫畵

『젖은 옷좀 벗겨줘요。감기들까 무서워요』

"How would you like to help me out of these wet clothes before I catch cold?"

동생사랑

버스운전사 채용시험장에서 시험관이 응모자에게 물었다。

『고속도로상에서 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하는가?』

『네、차를 길 가장자리에 붙입니다』

『그런데、길이 좁다면?』

『빨간깃발을 흔들어 뒤차들에게 알려줍니다』

『만약에 그 깃발을 차에 갖고있지 않을땐 어떡하는가?』

『네、그때는…』

골리려고 드는 질문에 잠시 머뭇거리던 사나이

『그때엔 전화박스로 달려가 내동생을 부릅니다』

『동생? 아니 당신동생이 무슨 도움이 된다구?』

『저어… 실은 내동생은 차의 충돌장면을 보는걸 아주 좋아하니까요』

"여름은 쉬는 季節"

외국의 바캉스 이모저모

◇서구사람들의 바캉스는 없어서는 안될 생활의 일부가 되어있다。 그렇기에 관광휴양지 마다에는 「설치기준」이 아닌 갖은 설비가 완벽하게 갖춰져있다。 〈마이애미해수욕장〉

파리、8월한달 텅빈都市

英·獨、태양찾아 外國여행

美、가족끼리 오붓한 곳에

서구인들에게 있어서 바캉스는 생활의 일부이다。 경기의 부침에 따라 바캉스인구가 다소는 기도하고 줄기도하지만 그인구가 격감하지 않는 것을보면 바캉스가 생활의 사치가아닌 여름의생활양식으로 굳어진것을 알수있다。

서구인들의 바캉스에 대한 개념은 동양인들것과는 발상부터 다르다。 동양인들은 일하는 틈을 내어 교대로 쉬는식이지만 서구인들은 여름동안 쉬는것은 당연한권리로 여긴다。

유럽에선 법적으로 5주휴가가 보장된 프랑스를비롯 각국마다 3、4주의 휴가기간이 제도화돼있다。 바캉스를 즐기는 양식도 명승지를 구경한다든지 하는 일반적인관광형태가 아닌 번잡한도시를 떠나 한곳에서 한달동안 머물면서 자연을 접하며 심신을 휴양하는 식이다。 휴가기간중 유럽인들은 특히 햇볕쬐는일에 열중한다。 연중 흐린 날씨가 계속되는 영국과 서독에서는 휴가중에「1년동안 쬐일 햇볕의 대부분」을 쬔다는 우스개소리가 나올정도다。

바캉스라는 용어를 창조해낸 프랑스인들은 7월초부터 도회지로부터 그랑·데파르(대출발)를 시작한다。

이들의 대부분은 「태양의 고속도로」를 따라 「황금의 지중해연안」이라 불리는 칸·니스·모나코 등지로 몰리고 산을 좋아하는 일부의사람들이 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 3국에 걸쳐있는 알프스산을 찾는다。

이렇게 시작된 바캉스 분위기는 7월부터 9월까지 약3개월간 지속되는데 피크를 이루는 8월 한달동안엔 파리는 텅텅비어 드문드문 길가에 보이는 사람조차도 외국여행자아니면 외국 노동자들이다。

돈많은 사람들은 고급호텔이나 별장을 이용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캠핑카에 가족들을 모두 싣고가거나 천막을 휴대하고간다。 또한 한달치 먹을양식을 모두 싣고가기때문에 현지의 식품상들은「호황속의 불황」을 겪는다。 프랑스 인들은 휴가동안에도타자나기타를 배우고 귀가할만큼 일뜨개질같은 간단한 실기를 배우고 귀가할만큼 일상의 연장속에서 바캉스를 즐긴다。

늘 구름이 짙게깔리고 한여름에도 낮기온이 섭씨20도를 넘는 경우가 드문 영국에서는 바캉스는 더위를 피하는 여행이아니라 더위를찾아가는 여행이다。

섬나라이면서도 해수욕할만한 날이 거의 없어 영국인들은 일광욕과 해수욕을 위해 여름이면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의 더운 지중해연안을 즐긴다。

그 서늘한기후덕분에 더위를 피하려는 외국의피서객들에겐 좋은 휴식처가 된다。 영국에서는 주로 고성과 유적 극장등 문화시설、유럽에서도 빼어난것으로 평가되는 아름다운 시골풍경을 이 바캉스족들을 끄는 요소들이다。

영국처럼 기후가 좋지못한 독일에서도 바캉스는 뜨거운 태양을찾는외국으로의 여행이 대부분이지만 독일인의 근면성은 여기에서도 발휘되어 물가가 비싼 스위스나지중해 보다는 유고슬라비아의 아드리아海를 즐겨찾는다。

해외여행을 떠나지못하는 국내여행자들은 기름값을 아끼기위해서 집에서 멀지않은 농촌에서 휴가를 보내는가하면 아예 모든식구가 자전거를 타고 야영을하며 전국일주를하기도한다。

열심히일하면서도놀때는철저히노는미국인들은 5월초순이되면 소속직장에 휴가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그해의 바캉스를 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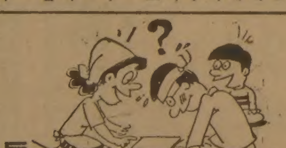
휴가기간은 직장마다 다르고 근무연한이나 고용계약에 따라서 모두차이가 나지만 보통 5~10년쯤 근무한 사원은 최소한 15일에서 30일간의 유급휴가를 보장받고있다。

미국인들이 즐겨찾는 곳은 역시 산과 바다이다。 바캉스는 미국시민들에겐 건실한 생활의연장이기 때문에 바캉스천이 되었다고해서 그것을 화제로 삼거나 들뜬 분위기를 보이거나 하는 법이없다。

, 행선지를 아는사람이 없는 곳을 택하는 또다른 이유는 주위가 낯선곳에서 가족끼리 디욱 오붓하게 즐길수 있다는 것이다。 휴가자체를 생활의 일부로 생각하는 미국인의 사고방식과 체제가 잘짜여진 레저사업및 완비된 휴가제도 때문에 미국인들은 바가지 상혼에 시달리는 법없이 바캉스를 즐긴다。 【柳東熙기자】

뉴스 낱말 풀이 퀴즈

가족과 함께 두뇌 체조를



<제13회 퀴즈>

<힌 트>

■가로

1. 아르헨티나 새 大統領
3. 李朝 마지막 王孫과 결별
5. 벼 농사의 제1단계, 가뭄때문에 아직도 못한 곳도
7. 근로자가 봉급에서 미리 빌리는 돈
9. 국가대표 축구팀
10. 모든 길이 통하는 곳
11. 威光이 있어 엄숙함
12. 약이 되는 풀
14. 양보함
16. 지팡이 짚고 학계서 관계로
18. 뽀빠이가 즐겨 먹는것
19. 물을 흩어 뿌리는데 쓰는 기구

■세로

1. 사물의 선악·시비등을 평가하는 사람
2. 모서리를 합하면 360度
3. 위로는 가지、아래로는 뿌리가…
4. 우리나라 대표적 민요
6. 인당수에 뛰어든 효녀
8. 진시황이 동방에서 찾던 약초
9. 지리산의 대표적인 사찰
12. 대구에 있는 한약재의 집산지
13. 객관적 사실이 없는 생각
15. 가뭄때 마다 불티가 나는 기계
16. 한국인 식탁에 꼭 오르는 반찬
17. 야구 경기중 주자가 틈새에 끼어 아웃될 때

〈13회 正答은 13면에〉

稀代의 엽색 殺人魔

現地 취재

이럴수가 괴롭히는 女人 모조리 없애

妻·동거여인··23명의 婦女子 농락

事件全貌

희대의 엽색 살인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많은 부녀자를 농락하고 거액을 갈취까지 한 全昌市(40)는 한두사람도 아닌 3사람을 죽이고 또 한 사람을 죽이려 했다. 살인 동기는 어처구니 없게도 갈취해간 돈을 달라고 요구하든가 결혼해 달라고 조르면 사정없이 죽여 버렸다. 사람의 탈을 쓰고 이렇게 잔인무도할 수가 있을까.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가난하고 외롭지만 그래도 가정부살이와 공사판 막일을 해 착실히 살아보려는 여인들이었기에 더욱 가슴을 죄게 한다. 범인은 그리고도 괴롭히는 여자를 계속해서 죽일 작정이었다며 후회는 커녕 오히려 혀를 깨물어 살기마저 보였다. 그의 엽색 행각, 무차별한 살인행각을 들춰 본다.

◇희대의 살인범 全昌市에게 희생당한 그의 처 尹英子여인㊧과 諸福成여인㊨.

부산시경은 지난달 26일 하기 아내를 포함해 세 여자를 죽이고 이중 2명을 암장한 釜山鎭區 草邑洞143의17 全昌市를 살인및 사체유기, 공갈등 협의로 구속했다.

전과 5범인 全은 80년 8월하순부터 2년여에 걸쳐 그의 고향인 경남 密陽郡 下南邑 大司里 뒷산 중턱에서 아내 尹英子씨(32)를 죽여 암매장한것을 비롯, 같은 장소에서 유부녀인 諸福成씨(48·부산 釜山鎭區 楊亭2洞)와 가정주부 南玉熙씨(50·忠南 大田市 中區 大寺洞114)등 3명을 차례로 살해, 사체를 유기하거나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全은 또 정부인 嚴모씨(37·仁川市 南區 鶴翼洞)를 같은 장소에서 죽이려다 미수에 그쳤고 忠南 大田市 中區 元모씨(45)등 부녀자 23명을 농락한뒤 금품도 갈취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중 1백7만원을 압수했으나 그의 무분별한 여성편력으로 미뤄 그에게 농락당한 여인과 갈취당한 금품은 이보다 훨씬 많을것으로 보고있다.

죽은 尹女人 오빠신고…捜査 4개월의 개가

신고

경찰이 全을 살인용의자로 떠올린것은 범인의 처오빠인 윤태갑씨(43·釜山 釜山鎭區釜田2洞515)로부터 동생이 아무래도 全에 의해 살해됐을 가능성이 많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윤태갑씨는 이 제보를 동생(尹英子)이 세들어 살던 草邑洞143의17 집주인 손복주씨(64)로 부터 연락받고 경찰에 알렸다.

집주인 손씨는 세들어사는 尹씨 부부가 지난 80년8월 24일 고향인 경남밀양군 하남읍 대사리 산19에 간다고한 후 그날 밤 돌아올때는 全혼자만이와 낌새가 수상했다고 말했다.

평소 부부 싸움을 자주 했고 집에서는 술을 안 마셔던 그가 이날따라 손수 쥐포를 사다 소주를 마시는 것을 보고 아무래도 이상했다.

◇범인 全이 현장검증을 받기위해 시체를 암매장한 현장으로 형사들과 가고있다.

수사

부산시경은 尹씨의 가출경위를 알기위해 가출신고가 돼있는 부산진경찰서에가 가출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尹씨는 80년3월6일부터 남편 全과 자녀 2명이 草邑洞143의17에 살고 있다가 남편 全과함께 고향에 다녀온다고 나간후 소식이 끊겼다.

그리고는 全이 부인인 尹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는 8개항을 작성했다.

첫째 평소 부부간에 자주 싸운점, 둘째 고향 어머니가 고향에 오란 사실이 없는데도 모친이 오라고 한다고했고 특히 산(묘소)으로 오라고 한점, 세째 평소 집에서 술을 들지 않던 자가 그날밤에 술을 먹은 점, 네째로 집주인에 말도 없이 전셋방을 내놓은 점, 다섯째 처가 시골에 취직했다고한 점, 여섯째 자기가 사는집 변소에 처 윤영자의 주민등록증을 구겨서 빠뜨린 점, 일곱째 全이 시골에 갔다온후 이틀만에 자기옷을 챙겨 집을 나간점, 여덟째 윤영자가 현재까지 친정오빠나 친정사람들에 하등의 연락도 없이 귀가치 않고있다는점등을 들었다.

이같이 경찰은 처 尹씨가 全에의해 살해됐다는 확증을 잡고 그의 소재수사를 폈지만 그리 수사가 용이하게 진척되지는 않았다.

가족중심의 소재수사결과도 신통치 않았다. 다섯째 동생의 진술은 80년4월5일 큰누나집에서 만나보곤 1년여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고 이들의 부부사이는 5년가량 헤어져 살기도 했다고 말할뿐이었다.

그리고 성격이 난폭하고 고향에 돌아오면 온동네에서 빚을 얻어가거나 논과 소등을 모두 팔아 없애기 일쑤여서 형제간의 우애도 없다고 했다.

어머니가 같이 살다가 고향에 내려가 혼자사는 것도 형수와 싸움이 심해 도저히 같이 살수 없어서였다고 말해준다.

그의 둘째누나가 사는 진해서 신흥동 모아파트에 출장수사한 결과도 全이 강원도 여자와 함께 76년, 77년 두차례에 걸쳐 2~3개월씩 진해에서 살림을 한일이 있고 지난80년7월에도 한번 다녀갔다는것 뿐이었다.

그리고 全이 79년 여름부터 80년6월까지 부산 동래 수안동과 남구 대연동에서 장미 아파트공사장에서 일할때 목수 黃세원씨(50)로 부터 3개월간 일한 노임으로 50만원을 받아간후 그의 행방은 알길이 없었다.

다만 그가 공사장 현장에 있을때 먹은 식대가 약 30~40만원 밀려있고 그해 7월에는 식당주인의 카메라와 구두까지 신고 도망갔다는것 뿐이었다.

全은 또 부산 東萊區 巨堤4洞 金모씨의 처 徐모씨(36)와 79년 10월부터 알게돼 다음해 3월까지 내연의 관계를 맺어오면서 7회에 걸쳐 30만원을 갈취한 사실과 徐씨의 친구집을 수리해 준다고 속여 지난80년8월에 현금 40만원을 사기해 먹기도 했다는것이다.

이밖에 全이 74년4월 강원도 묵호에서 안 李모여인(38)과 진해·仁川·釜山등지를 돌며 동거해 온 사실을 밝혀냈으나 그의 행적을 알기는 어려웠다.

경찰은 全이 묵호에 살때 어부로 일했을것으로도 추정, 속초·주문진·묵호등지의 오징어 잡이배 3백척의 어부 6천2백명에 대한 소재 수사도 벌였으나 허탕쳤다.

그리고 太白市에 있는 탄광업소 34개소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으나 이렇다할 단서를 찾아내지 못했다.

여기서 경찰은 동거여인 李여인이 직접 쓴 그의 일기장을 발견했을 뿐이다.

대학노트 50페이지의 양쪽에 볼펜으로 빽빽이 쓴 일기장 내용은 시종 일관 원색적인 표현으로 둘의 애정을 리얼하게 그리고 있다.

이 때 全이 李여인에게서 현금 4만원을 받아 李여인곁을 떠난뒤여서 李여인이 全을 그리다 못해 이렇게 쓴 것으로 보고있다.

李여인은 전 남편 崔모씨(46)와 2남1녀를 두고 살아왔으나 全과의 불륜관계가 탄로나 이혼하고 그후부터 全과 무분별한 애정행각을 벌여왔다.

검거

李여인의 품을 떠났던 全은 얼마만에 다시 찾아왔지만 大邱市 南區 진청4洞198에 살면서 돈을 물쓰듯하며 술집 여인들을 닥치는대로 농락했다.

끈질긴 수사끝에 경찰은 李여인의 행적을 알아내 수사망을 압축해 갔다.

"故鄕 다녀오마" 함께갔다 혼자돌아와 덜미

경찰은 李여인의 집주변공장을 비롯, 부근 여인숙 23개소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에 全의 사진을 주어 全이 여관에 나타나면 즉각 신고하도록 조치해 놨다.

李여인이 大邱에 산다는 사실은 鎭海에 사는 全의 누나로 부터 추적끝에 그가 대구서 남구진청4洞198에 산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경찰은 또 李여인으로부터 全이 지난 5월30일과 31일 이틀간에 걸쳐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명여관 3층에 투숙한 사실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아 은밀히 수사를 폈다.

경찰은 또 全이 여 여관에 있었을때 여관 종업원 朴호여인(30)으로 부터 동거여인 소개를 부탁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朴여인은 全의 부탁을 받고 全에게 이웃에 있는 금은화찻집 주인 李모여인(36)을 소개시켜 주기도 했었다.

경찰은 수사에서 李여인이 全을 사기꾼 같이 생겼다고 거절한 사실을 밝혀냈지만 李여인이 찻집을 경영하고 있어 全이 다시 접근해올 것으로 판단했었다.

경찰은 이에따라 이들 두 여인에게 신고해 주도록 단단히 부탁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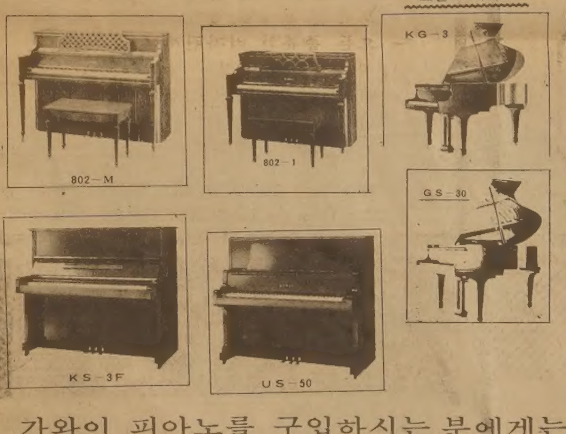
그러자 6월24일 상오9시 대구서 대교여관 3층 담당 金모여인(35)이 모여인숙에 全이 나타났다는 연락을 李여인에 알렸다. 李여인은 이를 다시 부산시경 형사대에 연락해 경찰이 출동, 무난히 검거하게 됐다.

이때 全은 여인숙을 막 나와 大邱市대명동 금은화찻집 앞길을 걷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의 불심검문 끝에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全을 검거한 형사진은 부산시경 수사과 강력계 禹泰國경사를 비롯 柳炳殷경사、禹載千경장、朴元圭경장등이었

가와이피아노및 올갠

여름철특별대매출



가와이 피아노를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400~$800까지 할인해 줍니다..

BONTEMPI이태리안 올갠

모짜르트 음악원
여름특강생 모집

기간 : 7월7일~8월25일

특수과목 : THEORY(GRADE Ⅰ Ⅱ)
HARMONY(GRADE Ⅲ)
HISTORY(GRADE Ⅳ)

담당교수 : MILA MULGREW, BARRY SCHONFELD
수업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전10시~오후12:30
수 업 료 : $250

일반과목 : 피아노, 바이올린, 전자올갠, 기-타(GUITAR), 훌룻, 첼로, 성악
수업시간 : 월~금 오전10~오후8시까지
토요일 오전10~오후4시까지
수 업 료 : $81(9 LESSONS) 등록금 15불

Markham Place
2900 Steeles Ave. E.
Thornhill
☎ : 881-8211

가와이 KEYBOARD CENTER (모짜르트 Music Center)
대표 윤 호 섭

Hillcrest Mall
9350 Yonge St.
Richmond Hill
☎ : 883-9407

MLS

HWANG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금주의 새리스팅

VARIETY STORES
주매상 $14,000 Rent $4,000 9년+10년 가격 $225,000
주매상 $14,500 Rent $5,000 9년+10년 가격 $225,000
주매상 $8,500 Rent $800 4년+5년 가격 $110,000
주매상 $7,000 Rent $1,720 4년+10년 가격 $75,000

VARIETY STORE와 BUILDING
1)주매상 $11,000 코거빌딩 다운타운, 아파트 5채,
가격 가게 $129,000 빌딩 $269,000
현금다운 $150,000,00
2)주매상 $7,500 코거빌딩 다운타운
가격 가게 $70,000 빌딩 $360,000 아파트 4채
현금다운 $200,000,00

DONUT SHOPS
1)주매상 $8,500 Rent $2,250 $350,000
2)주매상 $6,500 Rent $3,000 $200,000

VARIETY STORE LOCATION
1) indoor Mall Rent $7,00/SQF, 5 Years+5 Years Side 2100 SQF,2)개인 Building Rent $6,00/SQF, 1500SQF, 5 Years+5 Years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5 (B), 286-1548(R) M3B 1Z3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수요일은 문을 닫습니다.

中國良藥 大量供應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 : (416) 977-8858-9
10AM → 8 : 30PM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 오리엔탈 팔레스 2층
주 소 : 529 BLOOR ST. W.
전 화 : 533-3545~6, 533-1500

家政婦·공사판 女人들에 돈빌려쓰고 농락

有夫女 徐여인 내연관계 맺고 30만원뜯겨

다. 수사에 착수한지 무려 4개월만의 일이었다.

그러나 범죄 발생일로 치면 1년10개월만의 일.

검거되자 全은 처음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다가 형사가 『당신 부인 지금 어디있어?』하고 다그치자 순순히 자백했다.

또 너의 처외에도 4~5명을 더 죽였지 하고 추궁하는데는 쉽게 말문을 열려하지 않았다.

5시간 이상을 추궁하자 全은 체념한듯 형사에 물 한컵을 달래 마시고는 한숨을 쭉 내쉬었다.

형사들은 全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서 그의 심경변화를 기다리며 어떤 대답을 얻을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드디어 그가 『두명이 더 있읍니다』고 자백하자 순간 형사들의 입은 벌어지고 말았다.

의외의 범행에 놀란 형사들은 그 이상을 기대했지만 지금까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諸淑成여인、南玉熙여인등이 全에 의해 살해됐다는 사실을 알고 쾌재를 불렀다.

경찰의 다음 할 일은 무엇보다 全이 암장한 시체를 찾아내는 일이었다.

그래서 경찰은 全에게 시체를 유기한 장소를 도면으로 그리라고 설득했다. 그러자 全은 한참 머뭇머뭇하다가 할수 없다는듯 『이곳 입니다』하고 순식간에 유기장소를 그려 형사에게 내밀었다.

초조속에 가슴을 죄던 형사들은 탄성을 지르며 순순히 풀려가는 수사 실마리에 한껏 부듯하기만 했다.

경찰은 즉각 부산지검 검상운검사에 지휘를 요청하는 한편 부산시경 수사과장 崔相基、강력계장 安任鎬、형사주임 裵秀信경위등 형사 10여명과 부산시 법의감정위원회의사 소병국씨、감식요원4명、기동경찰관 10여명、유족 10명과 함께 범인이 그린 범행 현장으로 장의차 2대를 몰고 올라갔다.

조용한 시골 산중턱에 갑작스레 형사기동대차와 보도진차、장의차등 20여대가 몰어닥쳐 법석을 떨자 인근주민들은 놀라 무슨일이 일어났느냐며 의아해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한 범인 全이 『조금전에 자백한 내용은 모두 거짓말입니다』하고 시치미를 떼 순간 형사들의 눈앞은 캄캄해졌다.

담당형사주임 裵秀信경위는 『범인이 이렇게 말하는것을 듣는 순간 하늘이 노래지며 순간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 말했다.

마치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받은것처럼 돼 현장까지 온 검사에게는 물론 보도진과 형사람들 보기가 민망스러웠

"당신 부인 지금어디있어" 다그치자 自白

기 때문이었다.

高淑鍾여인 사건후 가뜩이나 실추된 경찰의 명예에 또 한번의 먹칠을 하는 계기가 아닐까해서 신경이 날카로와 지기만 했다.

그렇지만 형사들은 침착히 범인 全을 설득시켜 끝내 바른말을 하도록 유도해냈다.

그러더니 全은 손으로 가리켜 남의 묘소 옆에 처를 살해해 암장했다고 실토했다.

형사들이 삽을 들고 全이 가리킨 곳을 파보자 그곳은 땅을 판지 얼마 안되었고 조금 파 들어가자 심한 악취와 함께 뼈가 드러나 나왔다.

이때야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쉰것은 형사들뿐만 아니고 보도진도、검사도、경찰간부들도 마찬가지였다.

이어 부근에서 全에 의해 살해돼 암매장된 諸淑成여인、南玉熙여인의 시체도 차례로 발굴해냈다.

이 시체가 발굴된곳은 해발 2백82m의 야산으로 마을에서 1km 떨어져있는 한적한 곳이며 全이 이곳을 암장장소로 택한것은 동네로 들어가는 산길이 있고 인적이 드문 때문이었다.

범행

66년4월부터 尹英子와 연애 결혼한 범인 全은 평소 낭비벽이 심하고 성격이 난폭해 尹씨와 뜻이 맞지않아 5년째를 별거해 왔었다.

별거동안 尹씨는 부산 서면에 가정부로 들어가 3백여만원의 돈을 모았다.

이 사실을 안 全은 이돈을 빼내기위해 별거 5년만인 지난 79년10월에 재결합해 부산진구 초읍동143의17의 손갑주씨 집에 세들어 살아 왔었다.

全은 부인이 번 돈중 2백50만원을 모두 탕진하고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어오는 것을 尹씨가 싫어하자 이때부터 살해할것을 결심、기회를 엿보아 왔다.

이를위해 全은 80년8월23일 부산 釜山鎭區 釜田洞태화극장옆에 있는 라이락 운동구점에서 야전삽 한자루를 1만2천원에 사 그날로 밀양군 하남읍 대사리 뒤편 무등산에 올라가 尹씨를 살해、암장할 구덩이를 미리 파놓았다.

집에 돌아온 全은 처 尹씨에게 다음날 고향에 있는 아버지묘소에서 어머니가 굿을 하는데 어머니가 오라고 했으니 같이 가자고 꾀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이들은 열차편으로 밀양에가 여기서 다시 3천5백원에 택시를 대절해 그가 살해현장으로 지정한곳까지 처 尹씨를 데리고 갔다.

평소 시아버지의 산소에 가끔 간일이 있기때문에 아무런 의심도 않고 시아버지묘소가 있는 산으로 남편(全)을 따라 올라갔다.

거의 묘소가 가까와졌을 무렵 全은 뒤로 돌아서며 처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전날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넣어 묻어 버렸다.

범행에 쓰인 야전삽은 연근 솔밭에 숨겨두고는 그대로 밀양으로 내려와 釜山草邑집으로 왔다.

처를 매장한곳은 자기 아버지 묘소가 있는곳에서 동쪽으로 10m 떨어져있는 비교적 숲이 많은곳이다.

2차 피해자인 諸淑成여인은 범인 全에게 양정 아줌마로 불리고 있던 유부녀、남편 金모씨(50)의 월수입 15만원과 큰 아들이 월8만원 들여오는 돈으로 어려운 가계를 꾸려가던 가정주부였다.

28년전에 金씨와 결혼해 자녀 2명과 함께 어려운 생활을 해 왔지만 한마디 불평없이 지내왔다.

79년5월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한효맨션 아파트 공사장에서 막일을 해 돈을 벌어 오겠다며 나갔었다.

여기서 全을 알게된 諸씨는 全에게서 야릇한 감정을 느끼게 되자 그와 결혼할 생각을 했다.

이때를 노린 全은 諸씨에서 사업자금을 빌어 달라고 요구、諸씨로 부터 2백만원을 손쉽게 받아냈다.

그러나 곧 주겠다던 이 돈을 주지않고 자꾸 시간을 끌자 諸씨의 독촉은 매일같이 빗발처 댔다.

이미 그 돈을 유흥비로 모두 날린뒤라 갚을 돈도 없는데다 성화처럼 매일같이 돈을 내놓으라하자 견딜수가 없었다.

全은 諸씨도 살해해 없애버리기로 하고 시골에 사는 어머니께 가 결혼승낙을 받자면서 시골에 가자고했다.

이때 諸씨는 어린 아이들에 『엄마 기다리지 말고 공부잘하고 있어라。엄마는 제주도로 장사하러간다。아버지는 다른 여자를 얻어서 살라고 해라』는 쪽지를 써놓고 집을 나가 全과 동거 하고 있었다.

그때 큰방에 남편 金씨가 있었으나 아무말도 없이 나가버려 몰랐다고 한다.

諸씨가 가지고 나간 휴대품은 옷가지 몇벌과 시장아줌마와 친척으로 부터 3백만원의 빚을 지고 나간것뿐이었다.

◇암매장한 현장을 형사들에 설명하고 있는 범인 全。

뉴스추적

아내가 家政婦해 모은돈 따·女人과 탕진도

구덩이 미리 파놓고 차례로 誘引 살해암장

80년11월 중순 全은 諸씨를 尹씨와 같은 방법으로 죽이기로 하고 밀양 어머니에게 가는척하다 묘소부근의 장소로 유인해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린뒤 목을 졸라 암장해 버렸다.

諸씨를 매장한곳은 산길 원쪽으로 아버지 묘소가 있는데서 10m 떨어진 골짜기로 全은 이때도 매장한후 밀양으로 도주해 버렸다.

세번째 피해자인 南玉熙씨(50)는 81년5월 대전시중구 오류동에 있는 철여인숙에 있는 주점에서 알게돼 그후 몇차례 정을 통해왔다.

全은 南씨에게도 정을 통한것을 미끼로 장사 밑천으로 80만원을 빌어 쓰고 돌려 달라고 독촉을 계속 받자 죽일것을 결심하게 됐다.

全이 南씨를 죽이려 한것도 유흥비로 다 써버린 돈을 줄수가 없고 더구나 술집 마담인 尹양과 교제하는데 거추장스러워 살해키로 했다는것이다.

그래서 南씨에게도 전과같은 방법으로 고향에 있는 어머님께 인사나 한후 같이 살자고 꾀어 南씨를 밀양역까지 데리고가 택시를 태워 산을 넘어 고향집에 가는척하다 오른손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하고 암매장하려 했다.

그러나 이때 인근에 인기척이 나 그대로 버려두고 도망해 버렸다.

미수에 그친 네번째의 경우는 嚴모씨(37)에게 노총각이라고 속여 결혼하자고 꾀어낸뒤 처치하려다 뜻을 못이룬 경우다.

嚴씨와도 인천시 용현동에 있는 영남시장 신축공사장에서 알게돼 동거하게 됐다.

구렛나루 수염에 일견 미남형인 全이 싫지않자 嚴씨는 그가 전기 대패를 구입하겠다고 요구해온 40만원을 선뜻 내 주었다.

그후 嚴씨와 헤어졌으나 全은 1개월만에 다시 나타나 돈을 갚겠다고 만나자고 해왔다. 全은 嚴씨에게 그후 여러번 돈을 갚으려고 왔었지만 만나지 못해 그냥 가곤했다면서 그간 돈 1천만원을 벌어 시골 어머니에게 맡겨놨으니 시골에 같이가 찾지않겠느냐고했다. 그리고 어머니께 얘기해 결혼승낙을 받아 결혼하자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갈때는 금 목걸이 5돈쭝과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한 것은 어머니께 잘 보이기 위한 것이고 어머니께 옷이라도 한벌 사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이라는 말도 했다.

이러한 全의 속셈은 嚴씨의 금목걸이에 탐이 나 그를 살해할 계략이었던 것이다.

이런줄도 모르고 嚴씨는 목걸이 5돈중을 馬山의 모 전당포에 잡히고 10만원을 빌어 시어머니가 될 사람의 옷가지를 사기도 했다.

그는 또 집에 가려면 운동화를 신어야하고 운동화를 안 신으면 못가니 운동화를 사 신으라고도 했다.

그리고는 갑자기 집에 가도 돈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순간 속은줄 안 嚴씨는 욕을 퍼붓고 전당잡힌 금목걸이를 찾아 처분、나머지 돈을 갖고 仁川에 왔다.

이래서 죽음 직전에서 위기를 면한 嚴씨는 나중에야 全의 소행을 알고 치를 떨었다.

그는 경찰에서 『정적으로 나쁜 사람이니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의 벌을 주라』고 말하기도 했다.

범인 주변

범인의 고향은 사체를 암장한 현장과 인접한 밀양군 하남읍 수산리。

고향서 D중학3년중퇴인 全은 60년 군에서 만기제대해 68년 살해된 尹씨와 연애결혼했다.

全은 尹씨와의 사이에 13살짜리 딸과 10살짜리 아들을 두었으나 73년8월 尹씨와 별거한후엔 고향인 경남 밀양에서 농사를 짓다 지난 79년 3월 부산으로 와 목공소、전몰해체 작업장등에서 날품팔이를 하며 엽색 행각을 벌여왔다.

그의 학교다닐때 성적은 60명중 50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못했으며 범행후 한번도 어린 남매를 찾은일이 없이 지내왔다.

全이 살해된 尹씨와 사이가 나빠진것은 도박과 술을 너무 좋아하며 71년도에 처가집 황소 1마리를 팔아 치워 버린것이 멀어지는 계기가 됐다.

밀양에서 무술사범 (단증없음)을 지낸적도 있으나 자기와 한번 사귄 여자들은 자기를 한사코 놓아주지 않으려고해 여성 혐오감이 생겨 엽색 행각을 하게된것이라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자수를 안한 이유는 처벌이 두려워서고 형사들이 자신을 쫓는줄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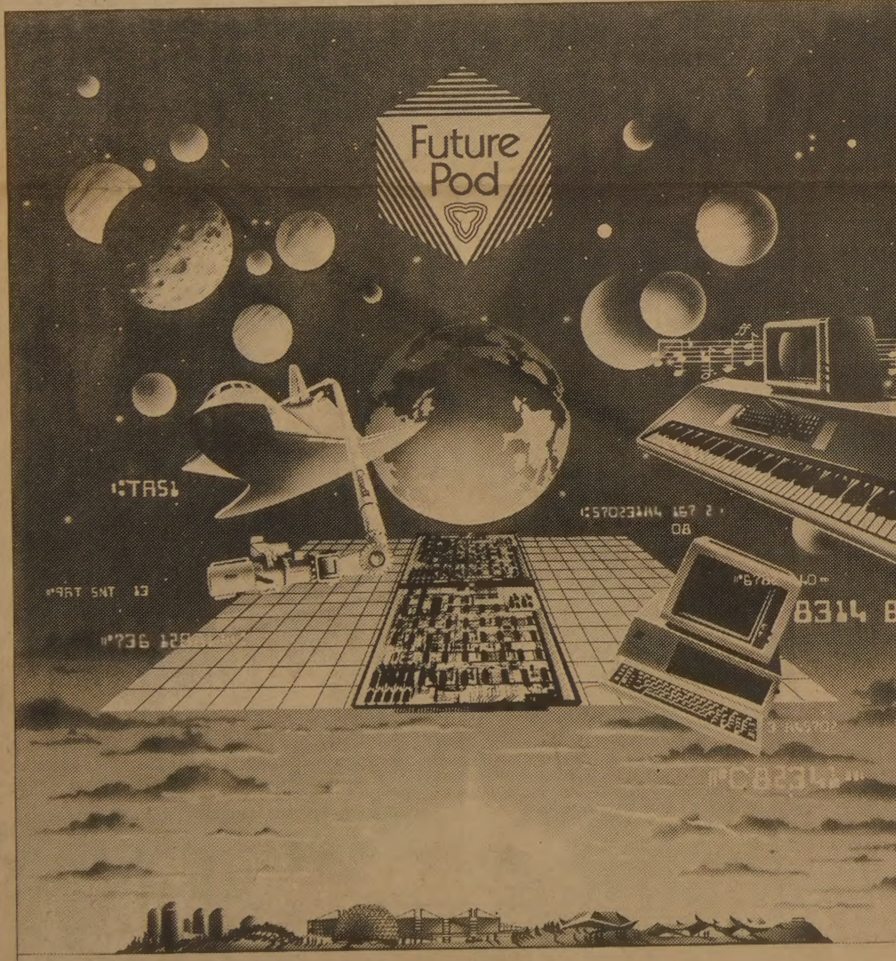
이번 사건은 경찰의 끈질긴 수사의 개가이나 이로인해 그가 계획했던 大邱의 李모여인、금은화찻집주인、대교여관 종업원 朴모여인의 살해 계획을 미연에 방지했다는데서 또 다른 수사효과를 보았다.

〈釜山=金明龍기자〉

珍기록

가장 장수한 프로 복서

제스·윌라드는 1881년 12월29일 캔자스주 세인트 클레어에서 출생、86년 351일이란 나이로 1968년 12월15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사망했다.



즐겁고, 매력있고, 경이로운

오늘 온타리오·플레이스에서 미래의 온타리오 모양을 보십시오.

매일 개장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9시30분까지이며 온타리오·플레이스는 무료입장입니다.

한국관

기계로 뽑는
냉면·짬뽕·짜장면
해장국·곰탕 전문

628 Bloor St. W. ☎ : 531-0277

IMMIGRATION CONSULTANTS

이민에 관한 상담환영

— 모든 스폰서쉽 경우
— 모든 종류의 비자관계
— 재판받기전 출정
— 이민국에 가기전 상담
— 미국·캐나다에 있는 투자나 회사에 독립고용 관계

※ 더이상의 문의는 ☎ : 291-9590
ZAIDI& ASSOCIATES

SHANGHAI RESTAURANT

드디어 해삼탕 개시!

메 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 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전 화 : 864-9347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 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 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 : 977-9734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타임) 구합니다.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오사까 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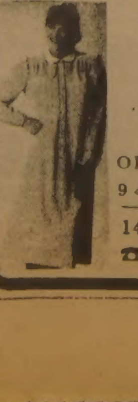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 스토아시간 :
월~목 11 : 00AM~10 : 30PM
금요일 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OPEN 7 DAYS
12 TEMPERANCE ST.
☎ : 366-3470

Queen / Bay / Temperance St. / Yonge / King / Ⓟ

Maximo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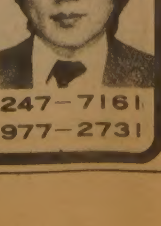


○ 숙녀를 위한 수입품 불란서, 이태리 핸손 옷을 전시한 현대식 쇼우룸.
○ 가격이 저렴합니다.

OPEN : MON(월)~SAT(토)
9 a.m.~5 p.m (오전 9 시~오후 5 시)
147 Spadina Ave. #200(2층)
☎ : 596-1413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移民과 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담 당 민 병 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MY MOUTH IS WATERING

back yard (뒷마당) 에서 자녀과 함께 불고기를 굽고있던 교포에게 한 백인이 다가와서 My mouth is watering. 이라고 하였다。이때, 물이 필요한 것으로 안 한 교포가 Just a moment, please.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한 다음 집안에 들어가서 물을 한 잔 가져다 주니까 미국인이 Thank you. 하면서 받아 마시기는 하면서도 별로 달갑지 않은 표정을 짓더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 미국인이 말했던 My mouth is watering. 이라는 말은 목이 마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불고기 굽는 냄새를 맡고서 「입안에 군침이 돈다」 라는 뜻으로 사용한것이다。

이와 같이 무엇인가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거나 보았을때 「군침이돈다」 는 말로서 My mouth is watering. 이라고 하며, 「그 음식을 보니 군침이 나온다」 는 That makes my mouth water. 라고 한다。

물론, 이 때 water는 동사로 사용되고 있다。My eyes are watering. (눈물이 나온다) I water my lawn every afternoon. (매일 오후 잔디에 물을 준다) 같이 water 가 동사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배가 고프다」 는 말은 I'm hungry. 라고 하며, 「배가 고파죽겠다」 같이 몹시 배가 고픈것을 나타낼 때는 I'm starving. 혹은 I'm famished. 또한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 는 My stomach is growling. 이같이 한다。

A : Do you like Italian food?
B : Oh yes, I love it.
A : Well, I know a very good place in this neighborhood.
B : Do they have good lasagna?
A : It's excellent. It's very thick and juicy.
B : My mouth is watering. Let's go!
A : Would you like to eat at my parents's tonight?
B : Is your mother a good cook?
A : She sure is.
B : Doesn,t she make a good potato salad?
A : Right. It'll make your mouth water.
B : I feel hungry already.

A : 이태리 음식을 좋아하세요?
B : 네, 매우 좋아해요。
A : 이 부근에 아주좋은 식당 한 곳을 알고 있지요。
B : 라사그나를 잘 하나요?
A : 아주 잘 합니다。아주 두껍고 즙이 많지요。
B : 군침이 도는데요。우리 어서 가봐요。
A 오늘 저녁 우리 부모님 댁에서 식사하는게 어때?
B : 어머님이 요리를 잘하시니?
A : 물론이지。
B : 어머님께서 감자 샐러드를 잘 만드시지?
A : 그럼, 군침이 돌 거다。
B : 벌써 배가 고픈데。

starve : 굶주리다。famish : 굶주리게 하다。(=starve) lasagna : 이태리 음식 이름。juicy : 즙이 많음。growl :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다。(천둥 따위가) 우르르울리다。tasty : 맛있는。Ex. This food is very tasty. 이 음식이 참맛있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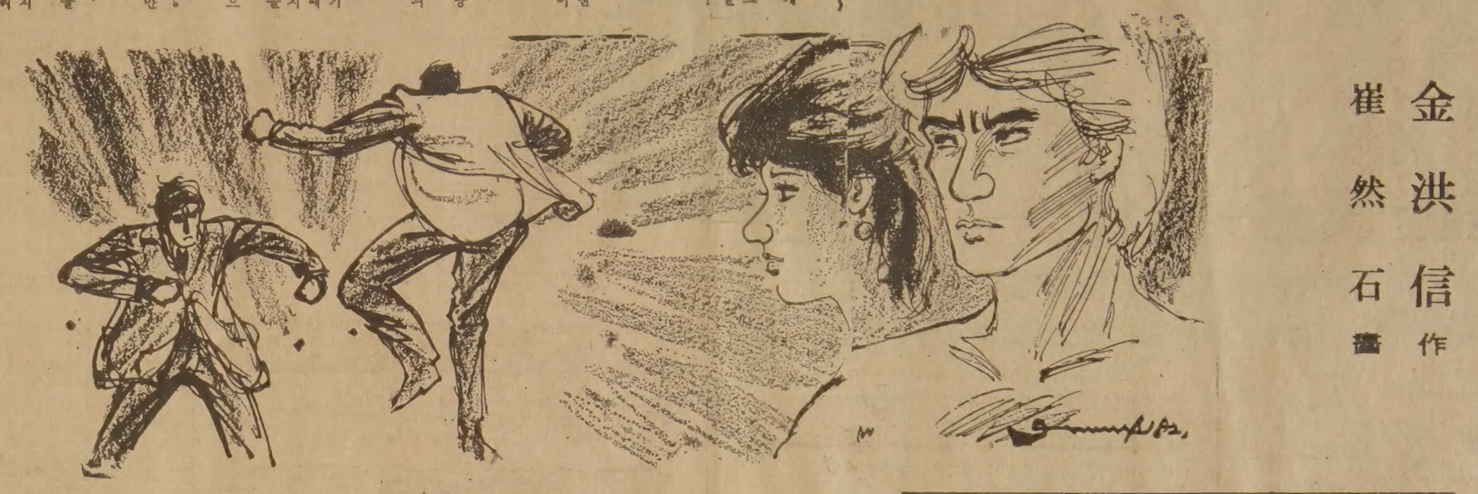
구입처 :
B. 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 S. A.
전화 : (312) 966－4050
책 : 제1권(12불) 제2권(12불) 제3권(12불)

해외걸작만화

『맛이 기찼었지。』
"It was delicious."

『빨리 대답해요, 가부를…』
(버스정류장)
"Answer quick…yes or no?"

스물세살의 자서전



人間市場

金洪信 作
崔然石 畵

82

지난줄거리

황마담의 보디가드들을 해치운 총찬은 황마담을 다그쳤지만 쉽게 입을 열지 않았다。단단하게 믿는게 있는지 웃기까지 했다。황마담은 옷을 벗으며 해결하려고도 했다。총찬은 방송가의 찰거머리 박부장을 불러내어 화풀이를 했다。박부장은 못견디어 연예인과 레코드회사를 괴롭힌 진술서를 썼다。황마담을 끌고 나가려 하지만 황마담은 태연하기만 했다。무슨 꿍꿍이가 있겠지…。

황마담이 흘깃 뒤돌아다 보았다。

『그렇게 보고싶으면 들어오시지。』

그녀는 이미 반나의 몸이었다。나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아름답다고 하기엔 조금 풍만한 육체, 그러나 탈력을 느끼게하는 육체였다。건드리기만 해도 툭 터져버릴 것처럼 농익은 여체였다。

『잠깐 들어와요。』

퍽 다정한 목소리였다。

『어서 옷이나 갈아입으슈。총각、기죽어서 들어가겠소。』

『이럴 때, 세상에 나같은 여자도 있다는 걸 봐두는게 좋으실텐데。』

『비계덩어리야 정육점에 가도 쌨소。』

『순진하셔。』

아까까지만 해도 그런 말을 하면 큰 소리치던 여자였었다。

『잠깐 들어와요。할 얘기도 있으니까。』

『난 비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소。』

『그럼 문답용서다。』

『그러슈。』

그녀는 돌아서서 방문을 닫았다。

나는 그때 거막한 그녀의 앞가슴을 보았다。그 나이에 그렇게 팽팽한 가슴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 보였다。

박부장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기절할 사람 같았다。내가 생각해도 처량한 신세였다。연예인과 레코드 업계에서 큰소리만 치던 찰거머리가 자술서를 써놓고 곤두박질 치는 그의 화려한 과거를 되새기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봐, 박부장。』

『예。』

눈을 크게 뜨고 대답했다。

『가엾은 여자들한테 몸도 상납받았다는데 네 마누라한테 한번도 안 들켰나?』

『예。』

『어떻게 고쳐 주랴? 네 입으로 말해봐라。』

『한번만 용서해 주세요。다신 그런 짓 않겠습니다。정말입니다。』

『네 말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께 맹세하겠읍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임마、하나님이 웃겠다。』

『믿어 보세요。한번만 믿어 보세요。사표도 쓰겠읍니다。』

『너같은 찰거머리는 사표 아니라 오표를 써도 안돼。』

『선생님、제발…。』

『너같은 놈 갈친 적 없다。막내동생 같은 놈한테 선생님이 뭐냐 임마。넌 떨어진 자식!』

『선생님…。』

박부장은 계속 애원조의 말만 늘어놓았다。

『너희들 이리 와。』

마룻바닥에 엉거주춤 서 있는 계집애들이 비척거리며 다가왔다。

『너희들、차라리 창녀가 돼라。그 여자들은 뼈대라도 있다。몸으로 출세하려는 년들 끝 좋은거 봤나? 몸 파는 게 예술이냐?』

『……。』

아무도 대꾸하는 여자는 없었다。무슨 체면에 입을 열 수 있을까。

그러나 그들의 표정은 뻔뻔스러웠다。하긴 그 지경으로 출세에 목을 맨 여자들이라면 뻔뻔스럽지 않은 게 이상한 것이었다。

『대답해봐! 몸파는게 예술야?』

『……。』

여자들 표정은 여전히 뻔뻔했다。얼굴이 두껍기 시작하면 여자를 당할수 없다는 말도 있었다。

나는 얼굴이 제법 팔린 탤런트의 따귀를 한대 때렸다。

『어마!』

『가죽이 두꺼워서 아프지 않겠지。』

나는 황마담 그늘에서 몸을 무기로 출세하려는 여자들을 차례로 때려주었다。성질같아서는 박부장처럼 치도곤이를 내고 싶었지만 차마 손을 댈 수가 없었다。

여자들은 얼굴을 감싸쥐고 구석으로 비켜섰다。

황마담이 방문을 열었다。화사했다。연한 분홍빛이 도는 투피스에 까만 줄이 박힌 실크 투피스였다。

『가봅시다。』

하얀 핸드백까지도 인상적이었다。핸드백 모서리엔 녹음기처럼 생긴 물건이 보였다。

황마담이 성큼성큼 걸어왔다。팍지가 훤하게 보이는 가슴을 내밀고 씨익 웃었다。

분사되는 액체가 코 끝에서 짙은 약품냄새를 풍겼다
이대로 며칠을 가두어 두면 제풀에 죽을것만 같았다

『박부장, 너도 일어나。』

박부장은 괴로운 표정으로 일어섰다。박부장의 표정과 황마담의 표정은 대조적이었다。박부장은 잘 견디지 못했다。나는 박부장의 겨드랑이를 꽤고 일어났다。

척익!

그 순간 황마담은 핸드백 속에 있는 물건을 치켜 들었다。분사되는 액체가 코 끝에서 짙은 화공냄새를 풍겼다。

숨이 가빠졌다。무엇인지 모르지만 목구멍을 툭 쏘았다。갑자기 몽롱했다。숨이 탁탁 막혔다。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았다。나는 쓰러진다는 걸 느꼈다。

『아、아!』

겨우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 뿐이었다。황마담이 다급하게 뭐라고 소리 지르는 것도 아득하게 들었고 둘러섰던 사람들의 웃는 소리도 아련하게 들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다。그저 막연히 끝장 난다는 생각을 했다。

그 짧은 순간에 수 많은 생각이 떠올랐다。정장이 말도 새삼스럽게 떠올랐다。어머니、말처럼 일찌감치 염라대왕한테 갈 아버지와 잔병치레로 골골하는 광신의 한을 외아들에게 풀어보려는 어머니、내가 태어나서 내 사랑의 주식을 가장 많이 분배해 준 다혜、그리고 내 엉망진창인 과거…。

하나님。끝장인가요?

살려주세요。

제발…。

나는 살아 있었다。

차츰 의식을 되찾았다。몽롱한 것은 여전했지만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은 확실했다。

나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살아 있다는건 전율이었다。하나님에게 기도했던 마지막 몸부림은 주력하게 기억났다。

손목이 뒤로 묶여 있었다。발목엔 철사줄이 옥죄고 있었다。캄캄한 시멘트 벽과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었다。어딘지 알 수 없었지만 지하실인 것만은 확실했다。

참으로 허무하게 당한 꼴이었다。녹음기처럼 생긴 물건은 특수한 무기같았다。분사액을 맞자마자 나는 혼미해졌었다。마취제이거나 특수한 화공약품인 것 같았다。

시멘트 바닥을 발길로 때려보고 소리를 질러봤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내 위치가 어디인지 조차 알 수 없었다。철문 특예 가파른 계단이어서 접근하기 어려웠다。묶인 손발을 풀더라도 빠져나가긴 어려운것 같았다。

묶인 것을 풀어 보려고 했지만 대힘으론 풀수 없었다。

황마담이 나를 살려줄것 같지 않았다。더구나 나를 감쪽같이 해치울 수만 있다면 박부장이 목숨을 걸만큼 나를 증오하고 있을것 같았다。

찰거머리들은 지금 나를 없애도 되는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을것 같았다。

나를 이렇게 살려둔 배경엔 반드시 그런 음모가 도사리고 있을 것 같았다。내가 단독으로 저지른 것이라면 손쉽게 없앨 계획일 것이고 내 행동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나를 행동대원으로 파견한 윗선이 있다면 흥정을 하려고 버틸지 모른다。

지금 쯤 내 신상을 캐내어 흥정을 하거나 없앨 계획을 세울지 모른다。어쨌든 나는 꼼짝없이 그들 손아귀에 들어 있는 신세였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고작 묶인 빨랫줄을 끊어보려는 몸부림을 치거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겨우 일어났다。토끼처럼 깡총거리며 뛰어보았다。살아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영화에선 주인공이 끈질 극한 상황에서 살아나는게 많았지만 지금의 내 신세는 그렇지 않았다。어딜 살펴도 내가 빠져나갈 길은 없었다。

허리띠 속에 감추었던 표창도 없어졌다。허리띠와 구두끈까지도 없었다。날선 표창 한자루만 있어도 손목을 풀어낼 수 있을것 같았다。

시멘트 바닥에 계속 비벼댔다。한 겹만 풀어내면 손목의 빨랫줄은 풀 수 있었다。손목을 엉덩이 밑으로 넣어 앞으로 빼내어 시멘트 벽에 계속 비벼댔다。내가 깨어나면 그 정도는 풀 수 있을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다。

한참만에 손목의 빨랫줄과 발목의 쇠사줄을 풀어냈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살아나갈 길이 막연했다。지하실은 견고했고 철문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이대로 며칠만 가두어 두면 제풀에 죽을 것 같았다。목이 말랐다。담배가 피우고 싶었다。아니 바깥공기를 맡고 싶었다。그저 흙먼지가 풀썩거려도 좋은 그런 공기를、마시고 싶었다。공해로 찌든 공기라도 좋았다。지렁이가 나오는 수돗물이라도 마구 퍼마셨으면、좋을 것같았다。

아!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 인간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른다。

하나님。당신은 나를 살려주셔야 합니다。나같은 사내가 한명 쯤 이땅에 살아 있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도 즐거운 일일겁니다。

하나님이 정의롭게 살라고 가르치셨죠? 그리고 불의를 보고 참지 말라고 가르치기도 했읍니다。그렇다고 제 행위가 모두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그러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작자들을 법이라고 하는 큰 구멍으로 걸러낼 순 없잖습니까。

법이란 항시 구멍이 뚫려 있읍니다。사람의 문제는 법만으로 해결되는건 아닙니다。법망을 피해 흉악한 짓을 하는 무리가 얼마나 많습니까。나랏돈을 구멍내고 뒷구멍으로 제 뱃속 채우는 공무원들의 뻔뻔스러움은 어째서 용납하며 귀여운 소녀 팔아 치부하는 사내들은 어째서 잘 살게 내버려 두는 겁니까。

하나님。아무튼 나같은 사내는 살려두는게 좋습니다。악착같이 살아남을 겁니다。

귀여운 녀석, 이젠 정신차려라… 황마담이 다가섰다
나는 장형을 잊고 장형도 이번일을 다 잊어버립시다

지하실 바닥을 죄 훑어보아도 손목에서 풀어낸 빨랫줄과 발목에서 풀어낸 철사줄 뿐이었다。그것만 가지고 육중한 철문을 뚫어낼 수는 없었다。황마담은 치밀한 여자같았다。

철문의 틈새로 바깥공기를 맡아보았다。철문 바깥으로 또 다른 철문이 있을 것 같았다。보통 건물의 지하실이 아니라 규모가 조금 큰 건물의 지하실인 것 같았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 알수 없었지만 배가 몹시 고파 왔다。

철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나는 철문 바로 옆에 기대어 섰다。들어서는 순간 내려칠 생각이었다。

『비켜서라。』

카랑카랑한 황마담 목소리였다。나는 숨을 죽인 채 주먹을 힘주어 쥐었다。

갑자기 지하실이 환해졌다。높은 천장에 매달려 있던 백열등이 강한 불빛을 쏟아놓았다。눈이 부셨다。

『몸 그만 잡고 내려서라。죽기 싫으면 어서!。』

나는 사방을 훑어보았다。천장의 백열등 주위에 나를 감시할 수 있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용케도 묶은 걸 풀었구나。아래로 내려서라。어서!』

나는 꼼짝 못하고 지하실 구석으로 내려섰다。철문이 열렸다。건장한 사내들 손엔 사냥용 장총이 들려 있었다。뒤따라 들어오는 사내들은 쇠갈쿠리를 들고 있었다。

『귀여운 녀석。이제 정신 좀 차려라。』

황마담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섰다。황마담 옆엔 후리후리하게 생긴 사내가 느린 동작으로 내려왔다。몹시 빨라보였다。무공 스님을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긴장감을 가졌다。눈매는 부드러웠지만 표정이나 움직임이 예사 사람은 아닌것 같았다。

『무릎 꿇어라。』

황마담이 내 앞에 버티고 서서 어덩게 말했다。

『황마담、차라리 나를 죽이지 그래。』

『그러지 않아도 죽여 주마。너같은 녀석은 살려둘 가치가 없어。나한테 감히 덤비다니。』

『함부로 나를 없애진 못할거다。』

『어린 녀석이 겁도 없군。』

『내가 당신한테 찾아갈 땐 그만한 각오 없이 가진 않았을 것 쯤은 알겠지。』

『아무리 그래도 살아나진 못한다。내 손에 걸린 게 죄다。』

『쉽게 죽진 않을 거다。』

나는 황마담 옆에 늘어선 사내들은 두렵지 않았지만 말없이 팔짱을 끼고 서있는 사내만은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자식을 없애버려。』

황마담이 물러선 사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쇠갈쿠리 든 사내들이 나를 에워싸왔다。나는 가볍게 몸을 피해 가운데로 나왔다。

쉬익 쉬익!

쇠갈쿠리가 바람소리를 냈다。

나는 앞선 녀석부터 재빨리 걷어찼다。황마담과 사냥총 든 사내들이 뒤로 물러났다。

쇠갈쿠리 든 사내들을 눕히고 돌아섰다。총구가 나를 겨냥하고 있었다。

『쏴버려。어서!』

황마담이 날카롭게 소리 질렀다。

사내들이 나를 정통으로 겨냥한 채 움직이지 않았다。나는 손을 꺼치는 순간을 맞았다。다른 것 다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총알을 피할 재간은 없었다。

사람들이 옛날처럼 무술정신을 갖지 않는 것은 총알이 발명된 이후에 어쩔수 없는 현상인 것 같았다。

총 한방이면 수십년을 갈고 닦은 무술도 일순간에 끝나는 것이었다。

총알은 비정한 것이었다。사람냄새는 단 하나도 나지 않는 살상무기일 뿐이었다。무술은 인간미가 있지만 총알은 그런 게 없었다。

『어서 쏴!』

황마담이 비명처럼 소리 질렀다。

나는 총구를 피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어서!』

나는 그 순간에 팔짱을 끼고 있는 사내를 쳐다보았다。미동도 하지 않았다。그의 눈빛은 강렬했다。

『쏘래두!』

황마담이 재촉했다。

『어때? 흥정합시다。』

팔짱 낀 사내는 비로소 입을 열었다。높낮이가 없는 목소리가 침착했다。

『어서 쏴! 빨리。』

황마담이 발악적으로 소리쳤다。

팔짱 낀 사내가 내게 바짝 다가섰다。

『비켜! 쏘라니까。』

황마담이 다급하게 소리 질렀다。

총을 든 사내들은 대꾸없이 겨냥만 했다。

『흥정하겠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총 내려라。』

팔짱 낀 사내가 이렇게 한마디 하자 모두 총을 내렸다。

『이게 무슨 짓야? 약속하고 잖아? 미스터 유, 왜 이래?』

황마담이 발악하는 소리를 질렀지만 팔짱 낀 사내는 내 어깨를 잡았다。

『한판 겨룹시다。이기는 사람 맘대로요。』

『좋소。』

나는 명쾌하게 대답했다。황마담이 떠들든 말든 팔짱을 푼 사내는 웃옷을 벗어 던졌다。아무래도 이 사내의 명령 없이는 다른 사내들이 움직일것같지 않았다。

『누님, 가만 계슈、약속은 지킬테니까。』

사내가 이렇게 말대꾸를 하자 황마담이 지하실 계단에 얌전하게 앉았다。나는 웃옷을 벗어 바닥에 내려놓았다。

동작선이 느렸다。사내는 별로 움직이지 않았고 몸을 재지도 않았다。그러나 공격은 번번이 빗나가기만 했다。나는 사력을 다했다。이 사내를 거꾸러뜨리지 못하면 내 목숨도 마지막일것 같았다。

사내는 좀처럼 공격하지 않았다。내 공격을 피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려는 것 같았다。나는 몸을 날려 공격하며 헛점을 찔러 나갔다。

한참 동안 나는 헛손질만 한 셈이었다。

그는 가볍게 몸을 날려 내 손목의 혈을 찍었다。

나는 댓자로 뻗어 누웠다。

이렇게 강한 상대는 무초권법을 배운 이후에 처음이었다。단 한번도 공격을 성사시키지 못했다。무서운 사내였다。

『내 이름은 유기하요。이걸로 우리 흥정은 끝났소。나도 장형을 잊고 장형도 이번 일을 다 잊어버립시다。자、돌아가시오。』

나는 간신히 일어났다。손목이 퍼렇게 실줄 솟은 자국으로 드러났다。유기하는 다가와 혈을 지그시 눌러 풀어 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비척비척 계단을 딛고 올라섰다。황마담이 무섭게 그러나 가소롭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런 황마담을 걷어찼다。황마담이 계단으로 굴러 떨어졌다。

유기하가 껄껄거리며 웃었다。

『반드시 당신을 찾아가겠소。』

나는 참담한 목소리로 말하고 문을 열고 나섰다。유기하의 웃음소리가 뒤통수를 때리고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畵

"우리처럼 결혼생활을 오래하게되면 말이 필요없게되는 법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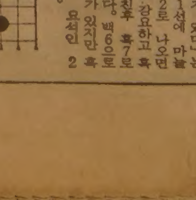
妙手풀이

<문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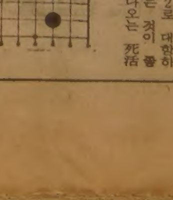
黑先白死

수상전의 급소를 말할 때면 으레 제시되는 유명한 그림。급소는 어디일까。백을 자충으로 유도하는 것이 어기는 비결이다。

〈해답도〉



제1도＝「1」에 수가 있다」는 바둑격언대로 흑1로 1선에 마늘모하는 것이 급소。백2로 나오면 흑3으로 늘러 백4를 강요하고 흑5、백6의 문답을 거친후 흑7로 바깥공배를 메우면 된다。백6으로 한칸 오른쪽에 두는수가 있지만 5의 왼쪽을 단수하여 요석인 2점을 잡으면 그만이다。



제2도＝흑1에 백2로 대항하면 흑3으로 한칸 뛰는 것이 좋은수。실전에서 자주 나오는 死活의 급소이다。

한인연합상사
한국인의 도매상
25－27 Rangemore Rd.
☎ : 251－6578

한국 CLASSIFIED

화초 도(소)매상
가장 저렴한 가격
곽 덕 열
☎ : 691－6768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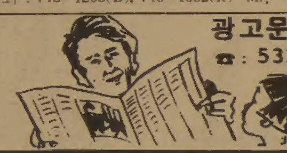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전영

MUNAMI TROPHY & SPORT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 745－1632(R) Mr. 마



광고문의
☎ : 533-2361

시설및수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심 부 원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패턴양재, 주문배수
전화 : 530－1046 10a.m.～5p.m 368－7258 6p.m 이후

의류수선 (남녀분 양복·양장 다 취급함)
의자 카바, Zipper 수리등 성의껏 해드립니다.
전화 문의도 환영합니다.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광고문의 ☎ : 533－2361

에어콘 히팅 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복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
스카브로 지역은 집에서 데려가고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16년간의 경험으로서 특히 신경예민하신 분들과 연세 많으신분들께 성심 성의껏 지도해드립니다. 한번 수업에 Parking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우실수 있으며 전문가로부터 운전에 관한 모든 필요한 지식을 배우시게 됩니다.
Call Ask Vlado, 291－8304 (오후 4:00－밤 11:00)

이삿짐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크로바인쇄소
3351 Lakeshore Blvd. W.
전화 : 251－9587(B) 252－7491(R) 위 정 남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자수(수예)

미싱자수 커버, 누비 커버, 꽃수, 명찰, 마크
주문및 판매 (언제든지 전화문의 환영)
700 Wilson Ave. Downsview 전화: 635－7154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a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신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연두·이건학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펫·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우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하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정영수 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仁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천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SAY CHARGE IT!
WE HONOR
master charge
오시지않고
광고를 내시는
편리한 방법이지요.
533－2361
한국일보사 광고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531－7505 서 춘봉

자연요법 및 지압치료. 왕진도 함(심 하섭)
요통(허리아프신 분).두통·복통·류마치스·불면증
643A Bloor St.W.(신용조합옆)(B)536－6854 (R)635－8744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전화 : 530－0522 531－4165(R)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화 랑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45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한국 CLASSIFIED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 도매함.
16 Osler St.
☎ : 762−7255, 7256, 270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구인

Full Time Sales Person

캐나다에서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분으로 용모단정하고 영어회화에 능통한 Sales Oriented된 분을 환영함. (관심있으신분 직접 문의)

고 려 보 석
Eaton Centre

가게 맡아서 운영하실 분 구함(Gift Shop)
(Bathurst 와 Duffrin 중간지점) 776 St.Clair Ave. W
11시에서 4시 사이에 직접내방 바람.

Donut Shop Manager구함.
직접 내방 바람.
1485 Gerrald St. E(& Coxwell)

Driver & Salesperson 구함.
★ Commission basis.
토론토에 있는 각 Variety Store에 Juice 판매하실 분.
약간의 영어 요구됨. 운전면허 있어야함. 트럭은 제공받음.
돈벌기에 전망이 밝은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요.
전화 : 482−4807

스토아 매니저 구함.
오타와 지구. 약간의 보증금 필요.
스토아 매매도 가능함. 전화 : 624−5817

Becker Store Manager 구함.
당분간 맡아서 보아주실분(경험자 우대)
전화 : 924−7696 (Mr. Lee)

지렁이 잡으실 분 구함(단, 경험자 한함)
좋은 가격과 좋은 지역임.
전화 : 534−8121 (Dennis)

아이스크림 가게 Helper 구함 (유경험자)
Franchise도 가능함. 전화 : 752−4366 Mr. 박

무엇을 찾으십니까?
한국안내광고란을 찾아 보십시요.

광고문의
☎ : 533−2361

하숙

Room & Board (New Markham, Finch, Scarboro지역)
독방과 식사제공 (1일 1식, 토·일요일은 2식)
연락처: 6시 이후 전화: 425−6068 Mr. Lee 월·수요일은 제외

구혼

결혼상담, 직업소개,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캐나다 영주권 소지자로서 (결혼 실패한 남·녀)
한국에 있는 성실한 사람을 배우자로 원하시는 분은 자기 소개서, 사진을 동봉하여 서울 주소로 연락바람.
주소 : 서울 관악구 신림본동 409−9 전화: 878−9907 김만수
(2명이상 선정해서) 꼭 회답하여 줄것임.
(수수료 무료)

개인지도

첼로 개인지도(레스리×휜치)
전화 : 492−7472 (Mrs. 연)

도자기 공예를 전공하실분 개인지도함
전화 : 233−9534 정 동 훈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 인 회	755−9288
노 년 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 우 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매매

사진 식자기 급매 (SAKEN SPICA−K)
교회 또는 인쇄소에 적당.
문의처 : 한국일보사
전화 : 533−2364 Mrs. 김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Hwy 10 × 던다스, 주 6일 매상 : $4,300
비데오머신 월 최저 $1,000 보장
(일요일 영업하던 가게였음)
리스 2년+5년, 렌트 $750, 가격 $5만+스탁(현금)
전화 : 276−3266

Variety Store 매매(Short Hours) 건강상 이유로 팔고자함
주매상 : $4,000, 렌트: $500(m.) 리스: 5+5
아스킹: $39,000+스탁. 전화 : 636−1697

"Fast Food"
1. 도너스 & 써브머린, 주매상 : $8,000
2. Hamburger drive−in, 주매상 : $8,000
3. 식당 (Tavern & Banquet) 주매상 : $10,000
4. 식당 (Tavern), 주매상 : $6,000 중국음식점으로 개조도 가능.
5. Dry Cleaners Pick Up 주매상 : $500
Jim Sklavos
Pan−National Real Estate Ltd.
Phone: 461−1114

Variety Store for Sale(Georgetown, Ont)
주매상 : $6,500. Open한지 3개월 되었음.
경쟁없는 가게. 넓이 : 2,000s.f. 렌트 : $1,300(M.)
185 Mountainview Rd. N.
관심있으신 분 내방 바람.

Mall안에 있는 성업중인 Ice Cream Store (Hotdog·Donut·Sandwich) 토요일 : Half Day. 일요일 : Close
1184 Weston Rd.(Eglinton & Weston) 관심있으신 분 내방바람.

식당 & 타번(Tavern) 매매
가격 : $55 000, 좌석 : 40
스카보로 지역. 전화 : 266−5990 (크리스)

Grocery Store − Private Franchise
Stock downpayment. S.W. of Toronto.
Best Offer. Phone: 259−2123 (이자예브)

Food Store 급매.
시간 짧고 수익성 좋은 가게를 급매코져 함.
주매상 : $12,500이상
2038 Queen S. E.
꼭 관심있으신 분 오후 3시이후 내방 바람.

Smoke Shop for Sale
년매상 : $325,000 (Eglinton & Caledonia)
전화 : 635−8405 (Vitale)

Variety Corner Store for Sale
이층 살림집 포함. 주매상 : $4,000
전화 : (1)−529−0018 Mr. Kim (Hamilton)

Variety Store 매매 (Building & Business)
(3 Bed Rm Apt. + 2 Bed Rm Apt.) 포함.
주매상: $7,500이상, 아스킹: $185,000 전화: 1−898−4326 (Mr.신)

Grocery Store for Sale
주매상 : $4,300~$4,800, 아스킹 : $26,000, Good Lease
Near Niagara Fall 전화 : 266−5895 (Mr. Kim)

Baskin & Robbins Ice Cream Store 매매
Franchise임. 리스 : 10년
전화 : 241−9593

Convenience Store for Sale
미시사가 Clarkson 지역
전화 : 822−2247 (Sam)

좋은 성능의 중고피아노 팝니다.
전화 : 665−8233(낮), 636−1430(저녁)

큰 Shopping Centre안.
년 11만불 보장. 순이익 절반. 렌트: $650. 리스 갱신 가능.
영업시간: 월−수: 9시30−6시, 목−금,토 9시30−5시,
요구액: 3만불 + 스탁
연락처 : Montreal(514)−691−3704, 691−4751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3,000−$3,300
전화 : 699−4804

Variety Store for Sale.(Bloor & Christie)
주매상 : $4,000이상. Good Lease.
Tom. 534−7785 Cosmos Realty Co., Ltd.

Variety Store 급매.
또는 Management하실분 구함. 주매상 : $3,500
리스: 15년 전화 : 651−1577, 656−5358

Air Conditioner 급매. General Electric.
8,000 B.T.U. 2주 사용했던것 임.
$265. 전화 : 431−6882 (Mrs. Kim)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룸메이트

Room Mate 구함. (Finch & Weston)
2 Bed Room Apt 같이 나눠 쓰실분.
고층 Apt. 전화 : 222−3877 (Miss Kim)

☎ : 533−2361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석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훈모부동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 권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각종간판, Silk Screen)
133 Manville Rd.
전화 : 755−9087 이 종소

가구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와 Kip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백화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 (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배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사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 30분까지

선물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생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